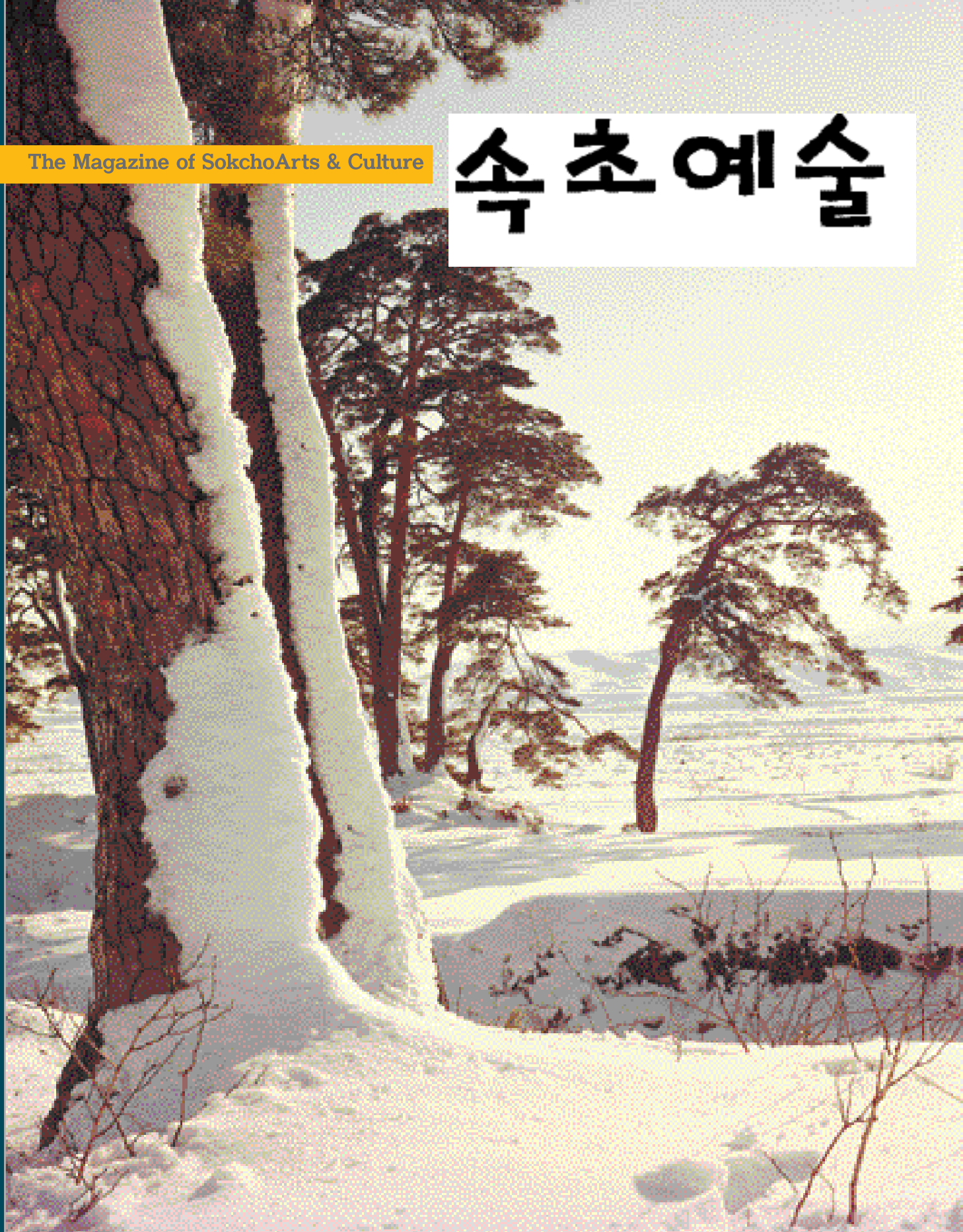


The Magazine of SokchoArts & Culture

속초예술



© 최구현

통권 제3호

2002

한국예총속초지부

www.artsokcho.com



산 2002-2 유화 8호

현대미술?
 작가는 신명나게 노래하고 작품은 졸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무조건 그릴 때……
 나를 떠나면 대중의 것이다.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 전
 시회, 발표회 예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양산
 되는 공해 속에 산다. 아무리 다양한 시대적
 특징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피해야 되는 양심은 있어야지.
 좀 자중하자. 그래서 더 걸러내자.
 정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술 세계만이라
 도 책임을 지는 작품을 만들자.
 오늘도 붓을 들지 못한다. 도저히 용기가 나
 지 않는다.
 나만의 얘기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냥 쉽게 그려야 할까보다.
 언제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
 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기고
 싶다.
 날개가 있어야 나는 것은 아니지……

2002.11 작가 노트에서



김영복(金榮福)

- 한국예총 공로상(미술부문)
- 속초시 문화상(문화예술부문)
- 강원교원미전 초대작가상
- 지방작가 초대전 등 단체전 다수
- 개인전 1회
- 속초미협, 예총회장 역임
- 강원도전, 교원미전 초대작가
- 현. 속초예총 명예회장
- 현북중학교 교감



표지사진

사진작가 최구현

1965년 1월 촬영.
지금의 설악산 입구에서 바라
본 설악산. 당시에는 도로가 만
들어지기 전이었다.

발행인 : 장 규 호

발행일 : 2002.12.31

편집인 : 박 종 성

〈비매품〉

이 책은 강원문화재단 및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 되었음.

한국예총속초지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속초시문화회관 내

TEL (033) 631-8070

FAX (033) 632-8072

e-mail : art-217@hanmail.net

2002 속초예술

한국예총 속초지부 통권3호
www.artsokcho.com

발간사	속초예총 회장 장규호	02
축사	속초시장 동문성	03
지역 예술인 탐구		
	고 김광수 화백의 삶과 예술을 돌아보며 정봉재	04
	동토를 맨발로 걸어오신 희생의 나무 작가 윤홍렬 박명자	06
	속초사진의 큰 어른, 최구현의 삶과 예술세계 최홍영	08
	속초연극의 흔적 신원하	11
글이 있는 이야기		
	부석사, 그리운 내 사랑 최월순	13
	석물전에서 김종헌	14
	공트 개장국 사상철	15
예술시각		
	現代 詩에 나타난 文明批評과 自然批評에 대하여 권정남	16
	한국 가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제언 임수철	27
	나의 연극 음악론 남상진	34
	미래를 향한 마당극 박영미	39
작가가 들려주는 「나의 작품」		
	봉서(封書)의 멋 최홍영	41
	장승1리3반 윤재복	42
	모난 정이 돌을 깬다 장국보	43
	「나의 대표작」에 작품과 글을 올리며... 서문일초	44
속초미술협회 지상갤러리		45
속초사진협회 지상갤러리		
	나의 사진이야기 NOW AND HERE! 장공순	48
속초사진협회		
	공모전과 사진작가 되는 길 황병진	51
	속초사진협회 2002년도 공모전수상현황	54
2002년 예총속초지부 돌아보기	박종성	55



장 규 호 | 속초예술총 회장

1년이라는 세월이 무척이나 빠르다는 것을 예술지를 발간하면서 느끼게 된다. 원고 때문에 각 협회 지부장, 사무국장들과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거듭하던 것이 었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 또 다시 원고와 씨름하는 편집위원들을 볼 때 세월은 결코 쉬어가거나 잠시라도 정지하지 않음을 새삼느끼며 게을렀던 내가 야속한지 아니면 정지 해 주지 않는 세월이 야속한지 여하튼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건 무슨 연유일까? 옛날,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적 시간이지만) 10대 후반-20대 초반인 시절에는 세월이란 게 너무 느리게 온다고 생각하고 그 세월이 조금씩 쉬어 가는 동지가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동지를 찾으면 세월을 빨리 쫓아 보내 겠노라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어 보고 싶다는 철 없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이젠 그 동지가 있다면 세월을 영원히 붙잡아둘 놀거리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세상의 사물을 어느 정도 바라볼 줄 아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슬퍼지는(?) 연습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애욕과 욕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분명 슬픈 일이다. 그리고 위대한 위선자로 남는 것이 차라리 현명하리라. 예술을 한답시고 예술가인 척하며, 예술가적 가치라는 미명 아래 수없이 많은 여타의 아름다움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이비 예술가들은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자. 지난 세월을 다시 한 겹씩 풀어 해쳐본다. '혹 연극을 한다는 미명아래, 예술이라는 방패막 뒤에서 타인의 혹은 사회적인 모든 보편적 아름다움을 거부하거나 짓밟아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는가?' 라고……. 나의 예술만이 최고이며 남의 예술이나 남의 미적 가치는 아예 천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는가?라는 스스로의 반문으로 나를 자책하며 반성해 본다. 자기의 예술적 가치만이 가장 위대하다는 망상과 관념을 버릴 때 비로서 진정한 예술가가 탄생하리라. 속초 예술계의 뿌리가 되어주신 문학, 미술, 연극, 음악, 연예, 사진 등 주위의 선배 예술인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껏 예술가인 척, 위대한 선구자인 척하지 않으며 묵묵히 그분들의 길을 걸어오셨고 그분들이 구축한 예술 세계가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음을 볼 때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 우러나는 경외심을 금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나도 당신들처럼 존경받는 예술가로 남으리라는 각오를 다지며 오늘 속초예술 제3호를 발간하는 데 애써주신 각 협회 편집위원 여러분과 본 예술지의 발간을 후원해 주신 강원문화재단과 속초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2. 12.

多事多難했던 壬午年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癸未年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속초예술」誌 제3호를 발간하게 됨을 10만 속초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8월 말 영동지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수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사상유례 없는 피해를 입었으나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자와 독지가, 시민 모두의 혼연일체된 단결력으로 조기응급복구를 마치고 이제는 항구복구를 위해 모두가 다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수해로 인해 설악문화제 행사 등 우리 지역의 주요한 향토문화예술행사가 연이어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분 개개인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해 온 작품과 기량을 대내외에 선 볼 수 있는 계기는 사라졌지만 수해복구 당시에 보여준 문화예술인들의 단합된 힘과 열의는 우리 지역의 조기응급복구에 촉매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뜨거운 응집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널리 알림으로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미래도시 속초건설”에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장규호 속초예총회장님을 비롯한 각 문화예술단체 회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예총 속초지부의 발전과 문화예술인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2.



속초시장 | 동문성

고 김광수화백의 삶과 예술을 돌아보며

정 봉 재 | 속초미술협회

올 해 속초미협은 20여 년을 함께 미술을 이야기 하던 원로작가를 잃었다.

산에서 바다에서 속초의 풍광을 화폭에 담아내고자 열정을 쏟아 부으며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흔적들을 그는 떠나고 없지만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서양화가 김광수 화백은 2002년 2월 19일 향년 81세로 별세하였다. 지면으로나마 고인의 예술인생을 아쉬움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한다.

김 화백은 1921년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리에서 태어났으며 1939년 함흥 금정공립소학교와 1944년 4월 함흥 관립 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하고 평북 의주초등학교 교원으로 발령 받게 된다.

하지만 그해 12월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중국 중지나 南通에 배속되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국에서 해방을 맞게 된다.

1946년 고향 함흥에 도착하여 함흥영정 인민학교, 함흥 제4중학교 미술교원으로 생활을 하였다.

현재 연극협회 박영미 지부장의 모친이 후배 동료 교사로서 이 당시 영정 인민학교에서 함께 교편을 잡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미술학업을 더하고자 48년 국립평양미술대학 회화과에 재학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영원히 헤어지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인과 2명의 자식을 남겨두고 공산체제에서 화가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미련 없이 남행을 결심한다. 화백이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중국전선에 참가하게 된 것이 마치 자의로 일본군에 협력한 듯한 공산당의 눈치주기와 예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련의 사건들이 점차 체제의 환멸 등으로 이어져 남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1950년 12월 국군 제1사단 보충병 모병으로 입대하여 국군수도사단 의무대, 정훈부 등에 배속되어 향로봉 전투, 고성 월비산 전투,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등에 참가하여 또다시 죽음의 고비를 수 차례 넘긴 후 52년 의병제대를 하기에 이른다.

남한에 혈혈단신으로 남하한 화백은 인맥의 부재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측 미술 대학에 재취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의병제대 후 57년까지 양구, 김해 등지에서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주며 얻어지는 푼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반복되는 타인의 초상화에 환멸을 느끼고 1958년부터는 서울에서의 작품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박광진, 오승우, 이용환, 이마동 교수 등과 교우 하면서 함남미전, 신기회, 일요 화가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이때 형성한 인맥들과 평생 예술 동지로서 친분을 쌓게 된다.

하지만 그 당시 누구나 그랬듯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잠시 붓을 놓고 목제상을 경영하면서 거부의 꿈도 이뤄지는 듯 했으나 평생 화가의 꿈만을 꾸며 살던 그가 사업으로 성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잠시 사업 실패로 좌절하지만 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림 뿐이라는 생각으로 미술의 길을 다시 걷게 된다.

그러면서 언제나 마음 한 편에 짙은 먹구름으로 남아있는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사무친 고향의 그리움으로 어느 순간 그가 자라온 함흥과 비슷한 남한 내 바닷가 도시 중 부산, 강릉, 속초 등에서 정착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결국 1981년 속초 이주를 결심하고 이곳에 정착해 미술학원을

경영하면서 후학 양성과 속초미술협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2의 삶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속초예술계는 예총 태동은 물론 문화회관도 건립되기 전이며 미술협회도 중앙인준 직후여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라 하겠다.

김 화백은 이때부터 1994년까지 해외 미술계 스케치 여행을 통한 작품을 중심으로 2, 3, 4회 개인전을 속초와 중앙에서 개최하여 중앙화단의 흐름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알리게 된다.

왕성한 미술활동을 하면서도 교육에 관한 열정으로 1983년 속초학원연합회 초대 지부장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해외 활동으로는 일본 '아세아 현대미술전'에 한국대표 단장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1986년 미협 속초지부장에 피선되면서 속초미술 발전을 주도하고 이어 1990년에는 제2대 예총 속

문화상을 수여 받았고, 2000년 함남미술인을 대표해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김 화백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이래 평생 화폭에서 손을 떼는 적이 없을 만큼 숙명처럼 예술을 향한 구도자적 자세로 외길 인생만을 걸어왔다.

1998년부터는 전립선암으로 병마와 싸우면서도 각종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세미나 참석, 금강산 스케치 여행 등 꾸준한 미술 활동은 물론 속초예총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후배 예술인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2000년 12월부터는 그간 문예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대상자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수 만 예술인 중 당해년도 수혜 예술인 60명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



△雪嶽의 殘雪 유화 15F

▷2001년 9월 16일 화백의 마지막 생신. 속초미협 회원들이 축하하고 있다.



초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영북 최대의 순수예술제인 '속초종합예술제'를 정착시키고 청소년 및 지역민을 위한 문예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의 문예 욕구해소에 일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술인 권익 신장과 화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0년 잠실롯데미술관에서의 5회, 1992년 아남프라자 개관 기념전인 6회, 1995년 제7회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1997년 '신기회' 자문위원으로 추대되었다.

그간 수많은 미술 전람회의 수상 실적은 물론 향토문예 발전의 공로 등으로 1992년 제4회 속초시민

도 하였다.

이제 그는 더이상 이곳에 없지만 그의 그림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

통일부에 이산가족 면회를 신청하며 북에 남겨둔 처자를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김 화백의 마지막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그려오던 북녘 금강산의 작품만은 말없이 남겨져 쓸쓸함을 더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속초예술

동토를 맨발로 걸어오신 희생의 나무

- 작가 윤홍렬 회장님과의 만남 -

박명자 | 속초문인협회

삶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몇번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윤홍렬 회장님과의 만남을 거의 운명적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1968년 수복지구 속초. 황무지나 다름없는 속초 땅에서 윤회장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문학이라는 인연의 끈을 잡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 삶 전체를 바쳐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나의 문학. 그 첫 모티브를 주신 분이 바로 윤홍렬 회장님이시다. 은혜에 뜨락 그 중심에 자리하시고 계속 지도와 성원의 손길을 주시는 윤회장님께서는 부모님과 같은 귀중한 존재이시다.

속초의 칼 같은 겨울바람.

그 동토위에서 윤회장님과의 조우는 나의 운명의 키를 돌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속초의 문학동호인 클럽 갈피의 태동은 나에게 구원의 빛 같은 거였다.

갈피 창간 무렵 윤회장님께서는 47세.

교육관 투철하신 속초고등학교 국어교사로서 전 교생이 우러러 모시는 스승 상으로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다.

갈피창간 무렵 속초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하였으니 전혼이 가시지 않은 폐허에 바락크 몇 채 바람속에 흔들렸으며 호구지책이 난감한 주민들은 밤낮 바다만 바라보며 한숨 짓는 형편이었다. 주민들은 학문이나 예술을 꿈꾸기 보다는 우선 추위와 허기를 걱정하는 생존의 문제가 급한 시절이었다. 이 무렵 윤회장님께서는 속초 땅에 문학의 씨앗을 심겠다는 열정의 눈빛으로 숨어있는 문학동호인을 찾아 내시었다. 윤회장님의 기치 아래 모인 문학동호인은 다음과 같으니 강호삼, 이성선, 최명길, 김종영,

김현문, 장태근, 박태서, 김영규, 송병승, 최춘지, 박명자 등이었다. 윤회장님을 중심으로 설악문우회가 조직되고 속초 문화인쇄소에서 갈피창간호가 출간되었다.

「갈피」라는 제호는 나의 제의가 받아들여졌으니 ‘취 갈’ 자 ‘산 피’ 였다. 취처럼 깊은 뿌리로 문학을 심자는 상징적 뜻이 내포되었다.

윤회장님께서 갈피 창간호에 다음과 같은 간행사를 깃발처럼 높이 내걸었으니 지금 돌아보면 실로 감개 깊은 내면의 향기가 어리운다

〈간행사〉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발가락 끝이 이 땅덩이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국이 세계적인 변두리도 되려니와 동시에 핵심적인 중심지대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변두리도 북판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 고장 속초를 흔히들 예술의 불모지대 동토대라고들한다. 지극히 관념적이고 독선적인 견해이리라. 하나의 자기 비하적인 독단이리라.

우리는 음악하면 「빈」을 미술하면 「빠리」를 연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전국을 연상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음악도 미술도 그 밖의 예술 어느 분야도 사과나 무에서만 사과가 열리는 그런 고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술은 인생의 사치품으로서의 장식물이 아니라 의식주만으로 부족한 생활방편상



필요에 의한 소산이라고 본다. 다만 동기와 조건의 이르고 늦은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삶의 자기표현이 예술이라는데 그렇다면 인생 있는 곳에 삶이 있고 삶 있는 곳에 예술이 있기 마련이다.

단 성실한 인생체험과 끈기 있는 노력이 있을 때는 말이다. 예술이 어느 국가나 겨레의 전유물이 아닌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예술의 불모지도 동토대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이다.

- 후략 -

속초지방. 문화의 불모지에 갈매 창간호가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큰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각계 각층에서 축하의 손길을 보내셨으니 국회, 방송국, 속초 법원, 어협, 경찰서, 재향군인회 등에서 축하금 및 축전을 각각 보내왔다.

우리는 갈매의 역사를 강물처럼 이어가며 한 가족처럼 화목과 온정을 나누면서 경조사를 같이하며 계절따라 야외나들이, 시화전, 시낭송회, 백일장 행사를 진행하면서 윤회장님을 받들어 모시고 있다.

윤회장님의 갈매사랑은 설악문우회 운영기금으로 이어지고 갈매 출판비를 매호마다 아드님 성 베드로 병원 윤강준님의 이름으로 거액 지원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갈매 뿌리에 거름으로 헌신하시는 뜻을 높이 받들고 싶다. 윤회장님의 또

하나 큰 역할은 한국 중앙문단과 중계역을 맡으신 일이다. 갈매가 해마다 출간되면 출판기념회를 기하여 유명문인을 초청연사로 모시는 일을 해오셨다. 속초문단을 다녀가신 중앙문단 선배작가, 시인,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따뜻한 지도의 손길을 주시며 중앙문단으로 자리를 안내하여 주시고 계신다. 그리하여 속초를 다녀가신 문단의 대선배님으로서 조연현(평론)선생님, 이범선(작가)선생님, 이원섭(시인)선생님, 구인환(평론)선생님, 황명(시인)이사장님, 김상옥(시인)선생님, 윤재근(평론)교수님, 박경중(아동문학)선생님 외에도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윤회장님께서서는 문단등용의 꿈을 꾸는 회원들에게 계속적인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현재 회원들 가운데 16명의 등단작가와 시인을 배출하고 있다. 윤회장님께서서는 거의 평생을 바쳐 갈매 발전과 후진 양성에 땀 흘리시면서 희생의 발자국을 남기고 계신다.

윤회장님의 땀과 피가 갈매 32년의 밑거름이 되어 이제 갈매는 꽃송어리를 피우고 이제 그 향기를 전국으로 파문 짓고 있다.

윤홍렬 회장님께서 동토를 맨발로 걸어오시며 갈매 발전에 희생의 땀을 흘리신 보람. 그 노고의 값을 헤아려 보며 다시금 감사의 뜻을 한아름 드리고 싶다.

속초예술

속초사진의 큰 어른, 최구현의 삶과 예술세계

최 홍 영 | 속초사진협회

설악산!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설악산이 이처럼 유명해지고 명산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설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한 분이 있다. 바로 지금 소개 드리는 최구현 본회 고문 이다.

전쟁의 포화가 가시지 않았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설악의 구석구석을 누비시며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 까지 이름을 지어 지금의 설악이 명산으로 자리 잡게 한 장본인이다.

최고문께서는 고성군 간성읍에서 출생하여 보통학교를 졸업하신 후 당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 명산으로 불리웠던 금강산으로 가서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사진조합에 조수로 들어갔다. 그때 나이가 15세였다. 당시 신기술로 분류되었던 사진 기술을 일본인들이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때였는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최고문의 생활이 일본인들의 인정을 받아 17세부터 암실작업부터 기타 사진 작업을 전수 받기 시작했다. 열심히 사진 기술을 익히고 지금의 고시처럼 어렵다던 사진사 면허증을 19세인 약관의 나이에 취득했다. 최고문은 그때의 기쁨이 가장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때부터 일본인을 비롯한 13명의 사진조합원들과 당당하게 금강산의 비경을 마음껏 필름 속에 담으며 최고문의 독자적 사진예술 세계를 구축하던 중 2차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2차대전 말기인 1943년 최고문은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후 패전국의 포로로 연해주의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3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치른 후 1948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년 후 또다시 6.25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으나 1950년 월남한 이 후 북진하던 국군의 뒤를 따라 고향 가까운 속초에 정착하게 되었다. 속초시 중앙동(당시는 속초읍 3구였다)에 승리 사진관이라는 사진관을 개업하여 사진업이 본격적인 생업이 되기 시작했으나 최고문이 다시는 갈 수 없는 금강산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넘치는 창작 예술혼이 그분을 사진관에 묶어 두질 않았다. 그리하여 금강산에 못지 않은 설악산으로 발길을 옮겨 금강에서 못다 한 창작 예술혼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초기 설악산은 산 전체가 거의 무명이었다. 금강산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설악산이 비로서 최구현 이라는 한 위대한 작가에 의해 재조명되고 재발견된 것이 어찌면 운명적 조우였는지 모른다. 과연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설악이 이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당시 설악의 참모습을 찾는 데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달영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설악의 진면목을 국내, 외에 소개 하고자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었다. 그 중에서도 최고문의 역할은 대단히 지대했던 것은 금강산에서 익힌 산사진 촬영의 진수가 설악에서 제대로 진면목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설악의 웅대한 자태들이 최고문의 카메라를 통해 국내, 외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지금 설악을 찾는 사진작가들에게는 설악 촬영의 효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당시 설악의 수많은 명소에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1957년 각고의 노력으로 제1차 설악산 촬영을 마치고 사진첩 편집과정에서 각 비경의 명칭



◇권금성에서 본 외설악 운해(최구현 촬영)

이 없기에 속초, 양양, 인제의 노인들을 방문하여 상당수의 명칭을 발굴하게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외설악 쪽 명칭을 찾기엔 한계에 도달, 신흥사지를 구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다가 결국 원주까지 수소문하여 현 속초예총 고문이신 윤홍렬씨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정확한 명칭을 다수 찾기에 이른다.

그래도 호칭이 없는 명소는 최고문이 심사숙고하여 명칭을 붙치게 된다.

금강산에서 분리워지는 비슷한 이름의 봉우리와 계곡, 폭포들도 기실 설악과 금강의 닮은 모습들 때문에 붙여진 이름들이라 할 수 있으며 설악에서 이름난 30여 개의 명소(육담폭포, 비룡폭포, 선녀봉, 집선봉, 문주담, 이호담, 귀면담, 오련폭포, 양폭포, 음폭포, 천당폭포, 염주폭포, 천화대, 마등령, 유선대……)들이 전부 최고문이 당시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제작된 설악산 사진첩을 전국 관공서 및 기관 단체에 발송, 이 사진첩이 계기가 되어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전국의 산악인, 사진작가 등이 설악을 찾은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영국 황실 아시아 학

술학원의 유치는 설악산 상가형성, 호텔유치, 교통량 해소를 위한 대한항공 유치 등으로 이어져 실로 사진예술을 통한 설악산 개발의 최고 수훈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최고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전쟁직후 속초의 모습은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한 임시 주거지의 형태로 남아 있을 때 최고문은 향후 몇 십 년 후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예지력으로 휴전 직후의 속초의 모습을 앵글에 담기 시작했다.

지금 다시 보면 ‘과연 이것이 속초의 예전 모습인가?’ 할 정도로 전혀 모습이 바뀐 속초의 옛사진은 우리들이 소중히 간직해야할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말까지 최고문은 속초의 삶의 부분을 또다시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당시 속초의 주요산업은 어업이었기에 바닷가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부와 그 가족들의 삶이 고스란히 필름 속에 담겨져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옛모습을 그의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지 모른다. 그리고 최고문



◇어구를 이고가는 아낙네(1950년대 최구현 촬영)

은 후배 예술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으로 해서 당시 인준 받지는 못했지만 속초예총을 1964년 설립하고 이후 7년간 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본격적인 예술활동의 무대를 마련했다. 그것이 모태가 되어 속초예총이 1989년 중앙으로부터 정식인준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고문을 비롯한 원로 선배 예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속초예술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또한 1966년 제1회 설악제 행사를 설악산 개발

10주년을 기념하여 예총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속초예총 주최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올해로 37 회째를 맞아 영북지역 최대의 향토축제인 설악문화제가 이렇게 최고문의 주도로 예총가족들이 단합하여 1회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실로 우리 예술인들의 커다란 자긍심과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1960년대 최고문은 속초 최초의 포트레이트 촬영을 시작으로 설악산 사진 개인전을 설악에서, 예술세계 사진전을 속초에서 가졌으며 동아 사진 대전에 가작, 입선 등 수많은 작품을 지상에 발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누드촬영을 시도하였고 당시 제자들이 촬영 장면을 훑쳐보다가 야단을 맞기도 했던,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었다. 최고문은 그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속초시 문화상, 강원도문화상 등을 수상

하시어 후배 사진작가 및 예술인들의 귀감으로 남아있다.

‘배운 게 사진 밖에 없어 앵글속에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그의 말은 어쩌면 우리 후배들에게는 성서 같은 얘기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이처럼 나 이외의 모든 이를 위해 헌신한 선배가 있다는 것이 여간 자랑스럽지 않다.

속초예술

속초연극의 흔적

신원하 | 강현중학교장

탈무드에 보면 “한 자루에 촛불로 열 자루에 촛불을 밝혀도 그 처음 첫 번째 촛불은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다. 나는 그 글귀를 되뇌면서 31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속초 연극의 흔적을 생각나는 대로 가감없이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가 속초에 처음 온 것은 1971년 6월 10일 천지에 신록은 눈부시었고 거리엔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연극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다. 내가 연극을 하게 된 것은 대학시절 동아리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71년 당시 속초여자중학교 박한서 교장 선생님께서 연극을 무척 좋아하시던 분이시였다. 그 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쩔 연극을 못했을 지도 모른다. 사람의 인연이란 운명을 바꿔 놓기도 한다. 속초여중에서는 필자가 오기 전에 이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무대에 올린바가 있었다. 그 지도 교사가 서울로 전근을 가는 바람에 필자가 후임자로 중간 발령이 나게 된 것이었다. 그 당시 속초에는 연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였었다. 무대는 극장 네 군데가 있었지만 조명시설이 전혀 전무인 상태였다. 그 당시 승리 사진관 사장님이신 최구현님을 설득하여 사진관 조명기구를 모조리 빌어다가 사용하였으며 호리존트는 거의 양철로 두드려 만들어 썼다. 음향기기도 전무 상태였다. 당시 서울 문화방송국에 필자의 동창생이 마침 전설 따라 삼천리 연출을 맡고 있어서 모든 음향은 그 친구가 도와 주었다. 최초의 작품으로는 신명순 작 전하를 여중생들을 데리고 막을 올렸다. 3개월 간 연습을 한 역작이었다. 그때 그 배우들이 살아있는 증인이다. 당시 수양대군 역은 현재 속초YWCA 이사장

이며 부부 약국 약사인 김정하가 맡았고 신숙주 역은 현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교 영문학 박사인 이경남 교수가 맡았고 성삼문 역은 현재 양양군청 자치 지원단장 한정님 사무관이 훌륭한 연기력으로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그 제자들이 속초연극에 첫 제자들이다.

72년도에는 한국에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던 이광래 국본 ‘한 낮 등불아래 나비들’이란 6 25전쟁의 아픔을 그린 풍자극으로 대원 국장 무대를 뜨겁게 했다. 객석은 항상 만석이였다.

73년도에는 속초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bbs 불우 직업청소년 야간 학교에서 국어와 한문을 가르치면서 방과 후 10시부터 청소년 연극을 지도하였다. 6개월 간의 긴 연습 끝에 ‘한 낮 등불아래 나비들’이 동보극장을 눈물의 도가니로 만들었었다. 그 당시 이름이 났던 배우로는 현재 먹거리 촌에서 길목소주 카페를 운영하는 신오일 사장과 김덕기, 손호준 등 20여명이 청소년 연극에 몰입해 있었다.

기억이 바뀌었다. 71년 말에 당시 KBS 속초 방송국에 황창건이라는 아나운서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그 당시 속초 문화 예술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였다. 그는 곧 바로 장규호씨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두 사람은 배가 맞았다. 이 때부터 속초 연극은 급 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점점 사건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장규호씨 역시 속초 연극의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그는 이미 1966년도인가 속초고등학교 재학 당시 김택인 (당시 국어 교사 후에 속초고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 선생님의 지도로 사육신을 무대에 올렸던 이미 재능을 지녔던 청년 연극인이었다. 참으로 그는 나를 헌신적으

로 도와주었다. 그와 나는 서로 물을 만난 고기였다. 그 결과가 오늘에 속초 연극이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된다. 76년도에 속초 청년 문화 연구회 발족. 초대 회장에 이상필씨(현재 서석 고교 교장)가 문화 연구회에 연극 분과를 지도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때 처음 속초에 성인 연극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첫 작품으로 필자가 구성한 세 바위 착각으로 그 당시 배우들로는 정말 멋진 연기자들이었다. 김용주(속고 21회), 김계림(속고 21회), 손혜숙(속여고 9회), 탁순옥(속여고10회), 최신영(현재 거진 우체국장) 정말 기라성 같은 연극 배우들이었다. 필자는 한마디로 연극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기분이었다. 그 당시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건 필자 젊음이었으리라. 그 후 본격적으로 성인 연극에 몰입했다. 극장 대관료가 없어서 조그마한 예식장을 빌어서 공연을 했다. 기억나는 작품으로는 미시마유끼오 작 '광녀', '아버지 돌아오다'. 배우로는 최신영, 이춘희, '아가야 청산 가자'(현재 굴령쇠 대표 김귀선은 그 당시 속고 2학년으로서 필자에게 눈에 띄었다) 속초상고에 고인숙(타계), 김귀선은 현재 국제적인 배우가 된 것이다. 최고 관객 동원으로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박용숙 극본 '음악 공화국'이었다. 연 인원 3,000명은 족히 되었으리라 기립 박수를 받았던 추억이 있었다. 김자림 극본 '버리고 싶은 유산' 장규호 극본 '겨울만 사는 사람들'도 2천명 정도는 동원되었으리라. 10년이 지난 1981년에 필자는 속초에 최초로 소극장 카페 테아뜨르를 문을 열게된다. 초청 작품으로 춘천에 극단 굴레의 이영철의 '에리베이트'를 비롯, 노경민씨 연출의 '물새야 물새야'를 장규호 연출의 '그 여자 사람 잡네'를 10일간 장기 공연을 했으며 각종 문화 행사를 해보았지만 1년 만에 적자 운영으로 문을 닫고 한참이나 괴로워했었다. 1984년 당시 김 동훈씨가 한국 연극 협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춘천 최지순 형의 추천으로 중앙 무대인 한국연극협회 속초 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초대 지

부장을 역임하다가 장규호 회장에게 바턴을 넘기고 양구 해안으로 전근을 가게된다.

기억을 다시 정리하면 청소년 연극 곧 학교 연극으로 다시 몰두하게 된다. 1981년 고성고등학교에 근무 첫 연극반 창설 한 로단 극본 '울타리'를 공연 1982년 오학영 극본 '유다의 음성' 공연 1983년 역사극 '이대감 망할 대감'을 공연 고성 고등학교 졸업생으로는 동국대학교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국립극장 무대감독으로 공채 현재 한국 연극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김영봉이 있다. 1988년 속초 고등학교로 전근 연극반 구성 첫 작품으로 이광래 극본 '붉은 손들 가운데'로 제1회 강원 연극제에서 5개 팀 가운데 대상을 수상 연기상을 최승석군이 받았으며 필자는 지도교사상을, 1989년에 안국선 소설 '금수 회의록'을 각색하여 제2회 청소년 연극제에 참가. 1990년에 한로단 극본 '울타리'를 학교 예술제에서 공연 3명의 졸업생을 중앙대, 청주대, 전문대 등 연극영화과에 진학시켜 지금도 연극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4년 속초 여고로 전근 목련제에서 '울타리'를 공연 연극반 창단 후 태백시 황지 고등학교로 전근 연극반 창단 필자의 작품 '비탈에 선 영웅'들을 가지고 청소년 연극제에 참가. 1997년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공연. 태백에 근무하는 4년 동안 태백 연극 협회에서 '불지른 남자', '작은 할머니', '풍금 소리'를 강원 연극제에 참가하도록 종용 '풍금 소리'를 전국 연극제에 참가시킨 바 있다. 한동안 연극에 몰말라하다가 필자는 2000년 9월에 7일간 오태석 극본 모노 드라마 '불효자는 읍니다'를 공연한 바 있다. 2002년 9월 강현 중학교로 영전 11월 4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학교 축제 때 공연하므로서 연극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다. 연극은 마약이라는 말을 믿어야 하는 지... 남아 있는 여생 힘이 자란다면 속초 연극은 물론 강원 연극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소인의 희망이다. **속초연극**

한마디로 연극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기분이었다. 그 당시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건 필자 젊음이었으리라 ... 연극은 마약이라는 말을 믿어야 하는 지... 남아 있는 여생 힘이 자란다면 속초 연극은 물론 강원 연극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소인의 희망

부석사, 그리운 내 사랑

신경숙의 「부석사」를 읽고

최 월 순 | 문인협회

I. 남자의 기억

어두운 골목길을 돌아
무수히 많은 별과 바람을 만나고
용유도 을왕리 바닷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인의
뒷모습처럼
세월이 넘어가는 모습도
함께 보았다 그때까지도
그대에게 나는
유일한 존재인줄 알았다
세상을 향해 찬란하게 빛나는
바다 위의 길을 걸어
뜨거워지는 몸으로 기쁘게
그대에게 간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쉽게 대체되는
내 사랑
지척에 두고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부석사,
그리운 사랑이여.

II. 여자의 기억

세상이 고단하다해도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닿지 않는
깊은 계곡 열목어
같은 종족인줄 알았다
온 하늘 가득하던
아카시아 향기
네 머리카락을 휘감고
달콤한 꽃잎 같던 네 입술
세상의 가지런한 것들을
훑방놓고 싶은 건
네 꽃잎 같던 입술 때문이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순간으로
타오르고 싶던 광기가
지난 후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
지척에 두고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부석사,
그리운 사랑이여.

늘 신경숙의 소설을 읽으면 작가의 감성이 내게 전이된 것 같이 한동안 그
가 만든 이미지에 흔들려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소설 같은
거 읽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책을 집어들게 됩니다.
제가 읽은 '부석사'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아마도 아무도 닿지 않는 깊은
계곡에 사는 열목어 같은 종족인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눈물
흘리며 옛 애인의 남자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파트 입구에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화분들을 일부러 흐트려
놓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조차도 쉽게 대체 되어 버리는 이 세상을 살
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浮石처럼 결코 다
다를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내 사랑은 언제나 그림습니다.

석물전에서

김 종 현 | 문인협회

석물전에 가면
새로운 나라가 있다

성모 마리아
해수관음 보살
장군석
문관석
해태 두 마리
나란히 줄서 있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고
그들은 눈 흘키지 않는다

장대비가 와도
햇살이 내려 꽃혀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하나의 돌이 되고 싶다
그들 사이 나란히 서있고 싶다

빛속의 석물전을 보며

비가 내리고 있다.

해마다 방학 때면 이 곳 춘천에 와서 열흘정도 머물다 가는 일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처음 5-6년은 각종 연수를 받는 연수생으로 와 있었고, 늦게 다시 시작한 영어공부를 위한 대학 원생 신분으로 3년 내리 여름, 겨울 방학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 덕분에 지난 2년은 초등영어연수 강사라는 이름으로 춘천에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늘 머물게 되는 단골 여관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단골 여관 창밖에는 그리 넓지 않은 석물전 하나가 자리잡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지나는 길에 보게되고, 식사를 마치고 여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주 내려다 보게 된다.

그곳에는 해수관음보살상, 성모 마리아상, 해태석, 장군석, 문관석, 거북받침 비석, 모양이 덜 다듬어진 돌덩어리 등 각종 석물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있거나 혹은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불교와 천주교와 토속신앙을 상징하는 그들의 동거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들은 너무나 넉넉하고 편안하다. 종교가 다르다고 그들은 서로에게 눈흘기거나 헐뜯지 않는다. 종일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도 사이 좋게 웃는 얼굴로 비 맞고 있다.

비 내리는 여름날 토요일 오후, 세상은 저리도 싱그럽고 아름다운 데 지금도 세상 어느 구석에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믿음이 다르다고 편가르기를 한다. 지금 TV 속에서도 잘난 우리나라의 정치꾼들은 상대방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 증거도 없는 온갖 유비통신으로 더운 여름날을 더 짜증나게 만 들고 있다.

이런 날 나는 그들의 나라로 이사가고 싶다.

개 장 국

사 상 철 | 문인협회

가슴팍과 겨드랑이에서 땀이 줄줄 흘러 내리는 여름날,
이 시대에서 제법 성공했다는 한 후배가 찾아왔다.

크리스탈 피부에 상큼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동해안으로 휴가를 왔다는 것이다.

“선배님부터 찾아 뵙고…….”

옛날과는 달리 후배는 당돌하고 당당하게 자만의 교태를 부리며 너스래를 떠는 것이었다.

인과관계의 변화는 극치의 물질문명을 창출한 자본주의 사상에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후배는 부(富)를 이루었으니 선배의 지기(至氣)를 누르고 그 지위의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도 하였다.

어쨌던 반갑게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보신탕 집에 앉아 개장국을 시켜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후배의 부인 역시 ‘아사’라고 부르는 흰색의 애완용 강아지를 안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였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뜻으로 ‘아사’라고 부르다며 어제는 동물미장원에서 3만원짜리 몸치장도 했다는 자랑이었다.

술을 마시면 허풍을 치고 말이 많은 것이 속인들의 짓거리 이듯 우리도 서로 허풍의 말을 늘어 놓고 있었다.

낮술이 취해지면서 후배는 말이 많아지고 나는 또 들어주고 있는 사이에 아사가 식당안을 쏘다니다 손님이 앉은 상 밑에서 다리를 들고 쉬를 한 것이다.

바지에 묻은 개오줌을 닦아 내며 한 노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개장국 집에 개를 데려와서 남의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해……. 이 망할놈의 개새끼…….”

노인은 개를 쫓아 버리는 것이었다.

후배와 후배의 부인은 발끈하여 “무식하게 동물을 학대한다”며 노인을 향하여 샷대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개 같은 것들…….”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노인은 식당을 나가 버렸다.

나는 정말 그 노인의 말 같이 그들과 마주 앉아 개고기와 술을 마시고 있으니 ‘개 같은 놈’ 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인이 간간 후배는 “동물을 학대하는 무식한 늙은이”라며 아사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는 것은 영역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이었다.

수궁과 궁정에 대하여 나는 비판과 부정에 감정을 나타낼 수 없는 나의 자본주의 불만이 후배를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굴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여름날이었다.

그는 동물애호운동가로 야생동물 보호운동은 물론 밀렵단속에도 공로가 있어 많은 표창을 받은 떠있는 유력 인사이다.

한때는 폐결핵환자로 뱀, 개구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과 태반까지 마구 즐겨먹고 성공한 사람이다.

현대문명을 찬란한 극치에까지 성숙시킨 자본주의가 자유·민주·평등을 이룩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서 윤리와 도덕을 망각시켜 우리는 천민적 자유에 이기적 존재가 되었다.

전봇대를 뽑아 이빨을 쑤시는 개인주의 자유사상이 현실을 지배하고 차선책으로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나서는 그 자리의 후배는 야생동물 보호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동포에게 쌀 보내기와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하며 성직자라 자처하는 종교단체 책임자에게 양복을 사주며 사진찍기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세상인데 나는 배를 곯다가 후배로 부터 개장국과 술을 푸짐하게 대접받고 있으니 이것도 안빈낙도가 아닐까?

먹이를 받아 먹고 보호를 받으며 치료도 받는 야생동물이 자본주의 천민적 방편이라 비판하는 어리석은 나보다는 팔자가 좋은 모양이다.

지난 봄 김남근 박사가 라면 한 박스를 사다 놓아 때로는 끼니를 이으면서 방부제 반응으로 배탈이 나도 그것이 나의 주식이기도 하다.

나에게 있어서 자본주의는 천민적 자본주의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가난한 나는 구제불능의 천민이기 때문이다. 안빈낙도를 부정하는 자본주의의 흑백이론이기 때문이다.

혐오스럽다고들 하지만 나는 후배와 개장국을 먹으며 여름 하루를 보냈다.

속초예술

現代 詩에 나타난 文明批評과 自然批評에 대하여

권 정 남 | 문인협회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문명의 혜택을 입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 덕분에 인간 삶의 질은 윤택해졌고 모든 생활은 편리해졌다. 그러나 물질이 곧 행복을 낳는다는 이론은 서구인들이 만들어 낸 神話와 같은 허황된 말일 수도 있다. 과학 기술과 물질의 만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희생조차도 과학 기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희생 없는 행복’ ‘부작용 없는 진보’의 환상에 도취되어있었던 것이다.

고도화된 문명 발달에 의해서 인간은 어느 사이엔가 인간 스스로는 물론 모든 생명체가 파괴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각종 산업 폐기물에 의해서 빚어지는 대기 오염, 하천, 토양의 파괴로 인한 생명체 즉 동식물의 붕괴가 생태계를 파괴하기 시작하였고 도시는 자고 나면 고층 건물이 괴물처럼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도로를 내고 교량을 세워 천재 지변인 태풍으로 인하여 자연 훼손은 물론 재산과 인명피해를 당한 영동지방의 수해도 그 좋은 예이다. 또한 대기를 오염시키며 달리는 자동차 문명, 도시가 발달하므로 상대적으로 팽배해진 물질문명의 利己, 이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이로움을 주지만 인간영혼의 황폐화등 많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대중의 패러다임과 생활양식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죽어 가는 자연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파괴는 회복할 수

가 없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자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한다고 해도 개발위주의 정책, 물질만능적 가치관, 소비지향적인 생활 방식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죽어 가는 자연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자연과 인간의 相生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인간은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主人意識과 優越 意識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詩들이 서유럽 전지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고발하고 인간과 자연의 相生이 교란되는 현실적 과제를 글의 소재로 쓴 문학 작품인 生態詩의 유형이 탄생된 것이다.

생태계 문제를 문학에서 적극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생태 문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등 생태계 문제는 이제 문학의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생태시’는 자연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인식하는 詩이며, 환경 오염의 원인들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서 쓴 詩라고 볼 수가 있다. 시인들이 ‘文明批評’과 ‘自然批評’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모든 독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인식과 社會意識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生命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2. 한국의 文明批判 및 生態詩의 흐름

한국에서 文明批評 및 生態詩의 형성은 서구에 비해 30년 정도 늦게 이루어 졌다. 서유럽에서 생태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70년대까지도 한국의 생태시는 맹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시단에서는 전통적 서정시풍이 주류를 이루던 가운데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박두진 시집의 『인간 밀림』 등 소수의 작품만 生態意識과 文明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70년대 신경림, 이하석 등 소수의 시인들만 환경 오염 문제를 작품으로 수용하였을 뿐, 환경 및 生態 문제에 대한 작가들의 연대 의식은 기대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이 안고 있었던 정치, 경제의 특수한 조건에서 기인한다.

1960년대 경제 개발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産業 發展의 템포가 급격히 빨라졌고, 이에 비례하여 대량의 산업 폐기물들을 무제한으로 강물과 흙속에 배출하는 행위들이 속출하여 환경오염의 속도는 가속을 얻게 되었다. ‘개발’이라는 풍요로운 환상에 도취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극복에만 전력했던 까닭에 한국사회는 환경문제에 눈길 돌릴 겨를이 없었다.

1970, 80년대에 들어와서도 환경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없었다. 70년대 이후의 시대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고착된 시대였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진보적인 知識人들과 하층민중에 국한되었던 저항이 80년대 이후엔 중산층까지 끌어안게 되어 국민적 저항의 힘이 분출되다가 보니 대중은 물론 文人들까지 환경 파괴의 문제로 마음 쓸 여유가 없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한국사회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사례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실 그대로 보도되는 빈도수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환경오염을 중요한 社會問題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한국문단에서도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인간 생존의 위기를 경고하는 작품들이 출판계에 앞다투어서 나오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文明批判’ ‘生態詩’의 창작과 이에 관련된 문학적 논의는 하나의 문학 운

동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진 못하였다. 그러나 생명의 중요성 혹은 생명 존중의 정신에 바탕을 둔 ‘생태시’의 창작풍토가 조성되었고 創作과 評論 양 분야에서 생태 문제에 관한 문인들의 연대 의식이 형성되게끔 이르렀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는 고도로 발달된 文明에 비례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갖게되었다. 각종 환경 오염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절박한 현실을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그러한 현실 앞에 각 지역마다 환경단체가 생기고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각종 캠페인과 구호의 현수막이 곳곳에 나 붙기 시작했다. 여기에 부응하여 문학인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환경을 사랑하는 녹색 문인들의 모임이 발족하여 생태시를 엮은 동인지를 발간하고, 비슷한 종류의 모임단체에서는 환경사랑 시 낭송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개인과 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문예지에서도 환경에 관한 문학작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1991년에 시인 고진하와 평론가 이정호가 엮은 생태 시화집 『새들은 왜 녹색별을 떠나는가』의 출간은 한국 문단에서 ‘생태시’가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는 데 큰 기폭제가 되었다. 이 시화집 출간이 자극제가 되어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문제를 소재로 다룬 시집들이 지속적으로 문단에 반향을 일으키며 출간되고있다. 김지하의 『중심의 괴로움』 고진하의 『우주배꼽』같은 시집들, 자연 파괴로 인한 인간 생존의 위기의식과 환경 보호의식을 일깨우는 고흥렬의 『서울은 안녕한가』 이승하의 『생명에서 물건으로』 강남주의 『흐르지 못하는 강』 등이 출간이 되었다.

2000년도 초에 들어와서는 류시하의 자연에 대한 국내 외 작가들의 잠언 시 모음집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과 최승호의 『코뿔소는 죽지 않는다』의 출간과 환경을 사랑하는 문학인들의 모임인 한국 녹색시인협회 시화집인 『시와 녹색』 동인시집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신덕룡 편저인 『초록 생명의 길 I, II』와 이은봉의 『시와 생태적 상상력』이 출간되었으며 현대문학 2000년 7월 호에 수록된 『생태문학의 특집』을 비롯하여 각종 문예지에서는

자연과 문명을 파괴하는 저항시와 생명을 옹호하는 작품들이 文藝誌마다 특집으로 꾸준히 발표되었다. 2000년도 초에 들어와서는 환경을 주제로 하는 문학작품들이 인터넷의 대중화로 사이버 공간에 올려지고 출판계에서도 그러한 작품들을 앞다투어 출간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독자들에게 환경 문제를 문학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90년 이후 각종 詩 전문지에서는 생태시에 관한 創作과 評論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2000년도 초반에 와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어 그 내용이 다량의 文學作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한 현상은 90년대 이전 詩에서 나타나던 사회 참여와 저항의 성격이 생태계로 그 관심이 변화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인간의 자유와 生存權을 유린하는 지배 세력에 맞서 싸우던 70, 80년대 참여 문학이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함께 짓밟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저항하는 새로운 유형의 생태를 보호하는 참여 문학으로 변화 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개발위주의 정책, 정치적 이념의 대립, 경제적 현실 문제 등으로 방치되었던 환경문제가 90년대에 들어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 환경은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인식을 갖고 일반인들까지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 때 抵抗 文學에 참여했던 문인들까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절실한 危機意識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망가져 가는 자연 환경을 되살려 냄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攻滅을 막아야 한다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졌다.

3. 시인들의 文明과 自然批評에 대한 現實 인식

옛날에는 많은 시인이나 풍류객들이 자연을 예찬하며 자연 자체를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노래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 와서는 '自然詩'에 대하여 공유점을 가지면서도 자연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서는 큰 변별점을 갖게 되었다. 20세기 중엽부터 이 백여 년 동안 서구의 시단을

지배 해왔던 전통적 '자연시'는 은유, 상징, 화려한 修辭를 동원하여 자연의 모습을 실제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공하고 변형시켜왔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경지로 고양시킬 수 있는 언어와, 시인과 자연의 만남을 무의식적 합일 단계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이 십 세기 중엽이후 전통적인 '자연시'는 시대적 딜레마를 갖게 되었고, 기술 문명의 급격한 변화 앞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낙관적으로 예찬만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자연은 더 이상 아름다운 노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고, 독자들 삶에 있어서 현실인식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생태 파괴의 현실을 그대로 은폐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영동 지역 수해만 해도 그렇다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산을 허물고 도로를 내고 물길의 흐름을 바꾸어놓아 자연은 물론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까지 있었지 않았는가 문명의 발달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攻滅의 동반자로 변해 가고 있을 때 생태 시인들은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실상을 낱알이 문학 작품 속에 흡수시켰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自然詩'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자연을 文學 作品의 소재로 다룬 점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언어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자연파괴를 다룬 生態詩는 자연에 대한 인식, 주제 의식, 言術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자연시'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파괴된 자연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전통적 자연시의 낙관적인 인식을 부정하고, 문명을 비판하여 자연파괴의 근본 원인을 찾게되는 것이다.

이로써 많은 시인들은 자연대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대 도시 문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게 되고 그것은 곧 인간 생존의 위기와 결부 시켜 현실적 사회 문제로 爭點化 시키게 된 것이다.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의 현상을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 詩의 유형이 '文明批評詩'와 '自然批評詩'이며 이것을 총체적인 시각에서는 '生態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詩는 자연의 실상에 대하여 현실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시이며, 환경 파괴의 社會的 원인들을 고발함으로써 독자들의 비판의식과 개혁의지를 일깨우려는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연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시인들은

붓을 들어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자연과 문명비평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인간 삶의 위기의식을 詩를 지어 읊으면서 문명의 발달로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 현실을 고발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개발로 인하여 생태계가 훼손된 데 대한 自然批判과 文明批判에 대한 詩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짙어 먹을
넋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일 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남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전문

이 시는 문명의 범람으로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발발일 곳을 잃고 ‘쫓기는 새’가 되었듯이 인간 또한 정서적인 휴식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 사회가 인간이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라지만 궁극

적으로는 자연의 훼손과 동시에 온갖 오염이나 공해에 의해 우리는 지구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성북동 비둘기〉는 문명비평의 대표적인 전형시이다.

눈먼 자여
있이 진다. 말없이 있이 진다.
푸른 잎이 푸르른 채 진다.
빙글빙글 돌며 지상에 내린다.
눈먼 자여, 그대가 가는 길 어디에나
나무들은 울창하고
나무들은 어디에나 서서
나무들의 뜻과 느낌을 키운다.
그대가 볼 수 없는 나무들의 뜻과 느낌이
흔들린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린다.
눈먼 자여,
서쪽을 향해 부는 바람이
서쪽으로 잎을 흔든다.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쪽으로 잎을 흔든다.
그러나,
서쪽을 향해 부는 바람이
서쪽 잎을 흔드는 것도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쪽으로 잎을 흔드는 것도
눈먼 그대는 볼 수 없다.
그대가 볼 수 없는 지상에
있은, 바람에 불려 떨어진다.
빙글빙글 돌며 지상에 내린다.
그대가 볼 수 없는 5월의 푸르름 위에
눈먼 자여 있이 진다.
소리 없이 있이 진다.

이건청 〈눈 먼 자를 위하여〉 전문

오늘의 현실인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푸르른 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오염이 푸르고 싱싱한 잎의 생명을 끊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모든 생명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음을 이견청 시인은 신선한 감각으로 증언하고 있다. 산업공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인 선하고 약한 자가 ‘눈먼 자’가 된다면 문

명을 손에 쥔 그들도 ‘눈먼 자’로 함께 구제해야할 것이다. 거대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인은 인간 애로써 ‘눈먼 자’를 노래하고있다.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 전문

‘새’는 자연의 일부인 동시에 가장 ‘순수’한 것의 대명사이다. 인간의 자연 파괴 행위 '포수의 한 덩이 납과 상한 새'는 자연과 문명의 충돌로서 인간의 본원적인 포악성을 고발하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와 평화로운 순수를 파괴하는 현실을 들추어 내면서 인간이 문명에 의해 궁극적으로 자아를 파괴한 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의식에 경종을 울려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래 전 폐가의 마당 한 쪽에
옛날 우물 하나 동그마니 남아 있다.
조심조심 다가가 들여다보니
맑은 하늘 속, 두 갈래 머리 뺀
예쁜 소녀 하나

웃고 있다.

내 어릴 적
한여름 점심때면 큰 두레박 가득
동네 찬 샘에 가서 찬물 떠와
식은 밥 물에 말아 풋고추 된장에 찍어먹던
보리 밥맛
꿀맛 같던 그 맛

지금은 물맛, 공기 맛
맑은 하늘 맛까지 다 잃어버렸다.
썩은 물 오염된 물 파괴된 생태계에 갇혀
생수, 생수, 생명수 찾아 헤매며
외꽃 누렇게 바래어 간다.
아파! 아파!
뿌리 잘린 뼈가 바스라져 간다

밤새 내리는 산성비에
이슬조차 빛나지 않는 21세기
숨을 쉬면 질산염이
숨을 쉬면 수은이
오줌을 누면 카드뮴 덩어리가 지구를 덮는다.

이혜선 <숨을 쉬면 카드뮴 덩어리가> 전문

두 갈래 머리 뺀 예쁜 소녀가 맑은 우물 속에 비춰 지던 자신의 모습을 나르시스처럼 그리워하고 있다. 지금은 썩은 물 파괴된 생태계에 갇혀 그 낭만 적이던 모습은 추억 속에만 갇혀 있을 뿐이다. 수질 오염 뿐만 아니라 산성비와 숨쉬면 질산염, 수은, 카드뮴덩어리로 덮힌 지구의 환경오염, 그런 것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갉아먹고 급기야는 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현실을 시인은 예리한 시각으로 아픈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누가 훔쳐갔나
내가 빠뜨린 그림 한 장!

뽀족뽀족 혀를 내민 느낌나무도
봉선화 물들인 손톱의 초롱꽃도
선잠 깬 새벽을 불러내던

깨끗 발의 까막까지도
구겨진 외딴길을 펴고 접던
외눈박이 분무치의 다림질도
하루종일 잠자리채에 푸성귀를 주워담던
아이들도 모두 떠나고

핏기 없이 굳은 콘크리트 탱크가
들판 복판에 배를 누이고 있다

주소도 남기지 않고 떠나간 이들은
어느 뒤 엄 밭 구석에 쌓인 쓰레기로
독감 걸려 콜록거리다가
빨 밭 지옥문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

마음 아린 내 귀엔
멀리서 웅성거리는 강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울 뿐

사방을 두리번거려도
꺾인 길의 허리에 들풀을 파묻고 일어난
회칠한 무덤 같은 콘크리트 벽만 아득히
일렁인다.

김지향 <개발지구 근처> 전문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던 자연은 한 폭의 풍경
화였다. 개발이란 명목아래 자연이 훼손되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다. 우후죽순으로 뻗는 빌딩 숲은
문명의 이기 앞에 인간의 본성마저 황폐화시키고
말았다. 시인은 강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느릅나무,

초롱꽃, 까막까지, 분무치가 떠난 회칠한 도시 숲
앞에서 더 이상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토록 빠르고 은밀하게
나무들을 죽이다니
도대체 나무가 당신들의 적이란 말인가
새들은 낯설게 변해버린 터전에서
당황한 듯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새들에게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몰랐단 말인가
낮익은 보금자리를 아무리 찾아 봐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되었다.
당신들은 여왕벌의 씨를 말렸고
나무의 땅에서 생명을 빼앗았다.
지금부터 당장이라도
한 그루 나무를 사람처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쓸쓸한 땅에서
돌처럼 굳어가리라

베레나린치 <나무가 당신들의 적이란 말인가> 전문

자연과 인간의 相生關係를 파괴하는 사회적 원인
즉 나무를 베어 산을 헐고 도로를 만드는 벌목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自然災害를 당했
을 때 자연과 인간이 당하는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위의 작품 속에서 시인
이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그루 나무를 사람처
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즉 ‘나무’를 비롯한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을 인간보다 하등 하게 취급하는 인
간 중심주의 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임오년 구월 초하루
정노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의 말은 분분했다.

조상 답 열두 마지기가
자갈밭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당의 오십 년 대추나무가
뿌리 채 쏘려가서가 아니라
군대까지 갔다온 다 큰 장정
조카녀석이 자동차에 갇힌 채
실종되어서가 아니라

진흙과 뒹굴던 하룻밤 뒤
이토록 맑은 하늘이라니
바깥 한바퀴 돌아보고 나서
말수 적은 당신답게
멀쩡한 앞산만 쳐다보았다.

그런 정노인
이유도 없이 꺾끗하게 돌아가신 일을 두고
사람들의 말은 분분했다.

「루사」: 2002년 8월 31일 강원 영동을 강타한 태풍

김춘만 〈루사를 만났을까〉 전문

루사는 지난 팔월 말 영동 지방을 강타한 태풍으로 자연 훼손은 물론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냈다. 그 피해는 속수 무책으로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났다. 天災地變이라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가 없다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재앙을 예견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헐어서 산사태가 났고, 물 위에 교각을 세워 물의 흐름을 바꾸어 놓아 엄청난 물이 논과 밭, 마을을 덮쳐서 재산과 인명피해가 더 심했던 것 같다. 영동지방의 수해는 피부로 직접 와 닿는 엄청난 현실 그 자체였다. 김춘만 시인은 조상 답 열 두마지기가 휩쓸려나가고 조카의 실종과 함께 상실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 의문의 죽음을 택한 정노인의 고통을 詩로 써서 대변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한 가정의 치유 할 수 없는 상처를 문학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호소를 했으며 위의 詩는 생생한 태풍 피해 資料로서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여름은 풀뿌리 쭉나물로
허기 메울 일은 없는데
놀란 개구리들은 다리를 절며
부끄러운 뺨(키)를 썼다.

무논의 피라미 떼들 지난밤
술취하지 않아도 속이 쓰리고
여치 알은 메뚜기 알과 함께
풀잎에 하얗게 붙어 죽었다.
빈 논 고동 껍데기는
배앓이를 멈추고 물 속서
바래어 간다.

최절로 〈허수아비.1〉 중에서

시인은 고도의 산업화과정에서 빚어지는 비정한 생태계의 파괴를 아픈 가슴으로 노래한다. 다리를 저는 개구리며 속이 쓰린 피라미, 풀잎에 하얗게 붙어 죽은 여치알과 메뚜기 알, 빈 논 고동 껍데기 등 환경오염으로 자연의 참다운 주인공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인간들이 저지른 참혹한 공해의 현장을 시인이 고발하는 이유는 시인의 파사로운 눈을 통해 더는 자연과 생명이 파괴되어서는 안된 다는 증언이며 생명의 외경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진지한 자세로 볼 수가 있다.

느린 도시가 행복하다
‘빨리빨리’가 미덕의 외출복시대
불란서 어느 지방이 ‘느린 도시’를 선언했다.
마을 입구마다 세울 뜻말은 이게 좋겠지
‘빌게이츠’와 그 추종자들 출입금지

그 도시 학생들은 지각생들이 많을 거야
허나 낙재생은 거의 없겠지
그 도시 처녀 총각들 결혼이 늦을 거야
허나 이혼은 거의 없겠지

그 도시는 세월이 느릿느릿 갈 거야
그래서 나이도 느리게 먹고
꿈을 먹고사는 청춘이 길어서 참 좋을 거야
죽음도 영 느낌보 걸음으로 올 거고
급사나 교통사고는 아예 없을 거야

‘디지털시대의 관건은 속도이다’
빌게이츠가 계속 신경을 건드리겠지
‘느리게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쉰다’
‘피에르 쌍소*’의 외침도 긴가 민가 하겠지

허나 아무리 바쁘게 돌아도 끝내
생명체에게 기다리는 막바지는 임종일진데
망서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
눈알이 핑핑도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나는 기꺼이 애써 취득하겠다.
가고픈 나라 ‘느린 도시’의 시민권을……

*피에르쌍소 : 프랑스 철학자겸 에세이스트
1999년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에세이를 발표

안정환의 〈느린도시를그리며〉 전문

느림에 대한 미학이 생각난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더 빨라야한다는 초 스피드화로 나날이 변화되어 가는 현대 문명이 낳은 경쟁사회 앞에서 시인은 ‘느린 도시’를 꿈꾸는 것이다. 컴퓨터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바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으며 만능 해결사인 컴퓨터 앞에서 인간은 그들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마음 영혼까지는 현대 문명이 지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눈알이 핑핑도는 어지러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 할 수 있는 여유, 느리게 살아야 우리 영혼이 숨쉴다는 느림에 대한 미학을 시인은 현대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몇 작품들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시인들의 눈에 비친 자연의 풍경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망가져 가는 현실이 이미 그들에게 낯설지 않은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서정적인 詩語는

자연의 피해 상황을 고발하고 증명하는 언어로 대체되고 말았다. 문명과 자연 비평의 시를 쓴 시인들은 자연 훼손에서 오는 환경 파괴를 동시대 독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발하고 증언하며 물질 문명의 팽배로 인한 理性 萬能 主義와 人間 中心의 사고 방식을 철저히 배격하며 비판을 하고 있다.

자연과 문명 비평을 쓴 시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優越意識과 主人意識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과학 기술을 통해 환경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도 인간과 자연에 대한 相生 네트워크를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과 동물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자연을 생명공동체의 동반자로 끌어안는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처해야만 미래의 대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생태시인들은 환경과 파괴에 대한 글을 써서 현실을 고발하며 독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일깨우고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우주와 자연의 지배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4. 에코토피아를 향한 相生 意志

자연과 문명 파괴에 대하여 쓴 몇 편의 詩들을 마치 사진 찍듯이 模寫하고 고발한 작품들을 살펴본다. 科學技術에 대한 맹신 풍조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가고있는 걸 느낄 수가 있다.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함께 파괴하는 원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개혁을 호소하는 詩들을 써야될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미 文明批判에 관한 生態詩의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동안 産業社會가 잊어버린 자연과 자연적 삶의 표상을 시인들은 詩에 담아냄으로써 자연과 親和하는 삶의 가치를 환기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과 인간이 상호 의존할 수 있는 낙원, 에코토피아를 향한 전망의의지 즉 인간이 자연과 가장 조화로운 화합을 보여주는 경지야말로 모든 생명체가 공존 할 수 있는 理想的인 삶의 좌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인 삶 에코토피아를 노래하며 현실적으로 보다 높은 경지에까지 끌어 올려 문학 작품 속에 정착시킨 시인이 이성선과 박명자이다.

이성선은 地上과 天上의 통로 역할을 하는 나무 즉 생명체의 상징인 자연을 끌어안으며 모성적인 존재로서 우주를 독자들에게 인식 시켜 주었던 것이다. 살아생전 문명을 거부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간 시인 이성선은 다른 生命詩가 갖는 또 다른 모습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인간 영혼의 안식처인 에코토피아를 추구하며 자연을 통하여 우주의 승이를 노래한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찾잔에 산을 띄워
달여 마신다.
솔방울 바람 산돼지
달빛 도라지꽃 향기도
재탕으로 마신다.
우주가
내 뱃속에
나비 되어 난다.

이성선 시 〈山茶〉 전문

나뭇가지 싹뿔줄을 타고
숨소리 죽여 흘러내리는
별들의 하얀 강물줄기.
내 몸까지 젖어 번쩍이는
저 우주의 물빛.
나무아래에서 샘물을 마시면
내 영혼에 날개가 돌아난다.
나는 이미 하늘의 악기가 된다.

이성선 시 〈별을 지켜선 밤〉 중에서

시인 이성선은 찾잔에 산을 띄워 달여 마시고 솔방울 바람 도라지꽃 향기를 재탕으로 마시면서 우주가 생명체인 나비로 탈바꿈을 하여 인간 영혼이 우주와 합일하는 숭고한 자리까지 끌고 간 시인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보고 현실성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宇宙의인 질서를 노래하여 資本主義 삶의 방식에 익숙하여 현대 문명에 오염된 체 無自覺 증세로 살아가는 현

대인들 마음을 淨化 시켜주며 잊어버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고있다.

또한 시인은 시 '별을 지켜선 밤' 중에서 나무아래서 샘물을 마시면 시인의 영혼에 날개가 돌고 하늘에 악기가 된다는 말은 나무와 시인이 渾然一體가 되어 우주의 섭리를 가장 깊이 듣고 세상에 널리 전달하는 의미에서 나무는 이성선 시인이 지향하는 에코토피아의 세계인 것이다. 즉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매개로 하는 통로로서 천상의 소리, 우주의 섭리를 구현하는 실체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아침 일찍 산문 열고 숲에 들었다.
불면의 긴 밤 구겨진 날개를 숲에 와서
비로소 활짝 편다

거리의 소음 속에서 나를 잊고 살다가
숲에 와서 나를 만난다.

새 옷 입은 나무들이 걸어나와 나를 영접하고
새들이 이 가지 저 가지 옮겨 다니며 길을
안내한다.
보아도 보이지 않던 내가 드디어 조금씩 보인다.
일상의 속임수에 포박 당했던 나를
조용히 풀어 해쳤다.

끝까지 가슴 밑에 남아 있던 감정의 응어리도
거품처럼 사라져갔다.
늘 옆으로 새나가던 말도 숲에 오면 찢기고
찢기어
구슬같이 동그랗게 오므라진다.
나를 떠나서 숲에 떨리 우는 정감의 가지, 가지

울 때는 혼자 왔지만 숲에서는 아주 여럿이
하나가 된다.

가슴 열고 손잡고 둥근 투명체가 된다.

나무 · 나무 · 나무

새 · 새 · 새

이름 없는 꽃 · 꽃 · 꽃……

숲은 핏발이 섰던 가슴의 핀을
선뜻 뽑아주면서
먼 태고의 트랙으로 나를 완전히 풀어놓는다.



박명자 시 〈혼자 산에 오는 이유〉 전문

겨울 나무를 습관적으로 좋아한다.
빈 마음 빈 몸으로 겨울 강을 건너는 맨발
그 나무의 얼굴 속에서 나를 만나기 때문이다.

박명자 시 〈겨울나무 홀로 서다〉 중에서

숲은 물 속처럼 차고 움직임이 없다.
숲에서 나를 건져 올리면
메아리처럼 나는 울고 있다.

오늘은 비오는 숲에 갔다.
물 비를 털면서 나무들은 웅성거리며
나에게 걸어 나왔다.

- 중략 -

도토리 나무 앞에는 사잇길이 세상구석을
선 듯 열어 보이고
총총히 되돌아나 오는 길센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만나
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박명자 시 〈아침 숲〉 중에서

박명자 시인은 후기 産業社會 즉 문명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세속적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것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대신에 시인은 산책길에서 만나는 많은 나무와 새 이름 없는 꽃 그리고 커다란 숲을 가슴 가득 소유하고 있다. 시인은 새 옷 입은 나무들이 걸어 나와 시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하나 되다가 보면 가슴 밑에 남아 있던 감정의 응어리도 말갭게 걸러지고 자연 속에 용해되어버리는 맑고 순수한 영혼 에코토피아의 경지까지 몰입하게 된다. 때론 자연과 영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즉 구도의 길 위에서 계절마다 만나는 冥想하는 나무 앞에서 시인은 나는 무엇인가라는 고독한 물음을 던지며 깨달음과 省察의 시간을 갖게 된다.

박시인은 나무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성선 시인은 시에서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 해주는 통로였다면 박명자 시인한테 나무는 자연과 영원을 연결해주는 매체로서 시인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깨닫게 해주는 先覺者적인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에코토피아를 추구한 시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의 표상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성선, 박명자 두 시인은 資本主義 삶의 방식에 굳어버린 사람들 마음의 묵은 커를 벗겨내고 잊어버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며 살아있는 것이란 우주의 질서 속에서 부단히 깨어나는 일 즉 깨닫는 일이란 것을 알려주고 인간 영혼의 안식을 에코토피아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汚染된 環境과 문명에 익숙해진 現代人들의 무디어진 감수성을 되살려 자연과 인간이 함께 相生하는 혼연일체 하나되는 삶 즉 생명을 향한 사랑을 노래했다. 자신의 편안함을 만을 추구하는 利己심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利他정신으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조화로운 화합을 보여 주는 에코토피아를 향한 相生 意志만이 文明 社會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5. 맺음말

시인들은 科學技術이 인류의 생존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물질적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한 인류는 과학기술의 파괴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있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생태 파괴의 현장을 생생히 재생하는 작업은 자연과 인간의 相生을 위협하는 危機的 상황을 독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가장 효과 적인 방법으로 인식 시켜 주려고 한 것이다.

그 동안 文明위주 開發위주에만 급급했던 産業社會가 잃어버린 자연과 인간 삶의 표상을 문학 작품 속에 담아 냄으로서 자연과 친화하는 모든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고 볼 수가 있다. 문명비판과 함께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 현실을 자연과 인간 사랑의 선구자적인 자세로서 시인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오염된 현실을 독자들에게 고발 한 것이다.

이 시대에 있어 주요 쟁점인 機械文明과 자연의 부조화로 파생되는 인간성 상실과 자연파괴로 오는 環境問題를 극복하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문제점을 호소력 있게 노래하는 작가들이 국내 문단에서 두터운 층을 형성해야만 한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혼연일체인 에코토피아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문학인들이 자연과 現實社會의 관계에 대하여 좀더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성선, 박명자 같은 에코토피아를 노래한 시인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자연 파괴에 대한 저항의 새로운 방식을 전개하는 詩들이 아직 많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문인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파괴하는 사회 현실에 맞서 지상의 모든 生命體와 자연이 함께 相

生하여 에코토피아를 추구하는 作品들을 많이 발표하여 생명을 향한 사랑을 보편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창조문학 : '생명을 옹호하는 저항의 시'

창조문학사. 2001년 봄호

詩 창작 법 이론과 실제 : 홍윤기 저, 한림출판사. 1993년

한국 현대시 이해와 감상 : 홍윤기저, 한림출판사.1987년

동강문학 제2호 : 생각이 크는 나무, 2001호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 : 류시화, 나무심는 사랑, 2001

혼자 산에 오는 이유 : 박명자저, 시문학사.1999년

빈산이 젖고 있다 : 이성선저, 미래사.1991년

출처:예술

한국 가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제언

임 수 철 | 속초음악협회

I. 다소 장황한 머리말

금년에도 어김없이 대학 입시가 치러졌다. 이번 입시 역시 전쟁을 방불케했다. 특히, 의대나 약대나 하는 소위 인기 학과 계열의 입시는 더더욱 치열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결정을 하여 오랜 세월동안 꾸준히 준비해야하는, 음대 입시보다 더 지루하고도 끈질긴 입시 전쟁이 또 있을까? 그래서 음악인의 한 사람인 필자는, 음대 입시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이번에 필자의 집안-형님댁-에서도 음대 입시를 치른 수험생이 한 명 있다. 둘째 조카인데, 솔직히 필자는 그 조카애가 음대가 아닌 일반대 진학을 내심 바랐다. 하지만, 조카애는 워낙 음악을 좋아하고 영어나 수학 과목에 비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날 뿐만아니라 적성에도 잘 맞아서 음대 진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은 하였지만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기 위해선 앞으로 수 많은 고통과 좌절, 그리고 절망을 겪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음악교육 현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선뜻 학생들에게 음대 진학을 권하지 못한다. 음악이 참으로 위대한 예술인 줄은 알지만 사랑스런 제자가 음악이라는 그 고행길로 들어서는 게 정말 안쓰럽고 두려운 것이다.

언젠가 한번 제자 윤모군이 작곡을 공부하겠다고 필자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작곡적인 재능은 아주 뛰어나지 않았으나 학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고, 매우 근면 성실한 학생이었다. 잘만 지도하면 입시에서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윤군에게 음대가 아닌 일반대 진학을 권했다. 그 때 윤군은 몹시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딱 선생에게 작곡 지도를 받아 모대학 음악과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지금 4학년에 재학하고 있다. 아마도 윤군은 음대에 진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시 필자의 의견에 대해 무척 서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필자의 심정을 조금 이해했으리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작곡과 수험생들이 모차르트나 베토벤을 꿈꾸며 작곡에 입문(入門)한다. 필자 역시 그랬다. 특히, 필자는 에그먼트 서곡이나 교향시 핀란디아 같은 관현악 명곡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게 꿈이었다. 그래서 학부 시절에 필자는 관현악 공부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러나 현재 필자의 작품 목록에는 관현악곡이 겨우 한 곡만 올라 있다.(대학원 시절에 쓴 2관 편성의 관현악곡이 한 곡 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작품은 그야말로 커리큘럼에 의해 쓴, 글자 그대로 습작품에 불과하므로 작품 목록에 올릴 수가 없다.) 관현악 작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젠 식었기 때문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필자는 지금도 관현악 작품에 대한 집념을 못버리고 있다. 파란만장한 이 땅의 역사, 그러나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내 조국의 땅 한반도... 이러한 역사를 가진 내 조국의 산하를 관현악이라는 음악 언어로 아름답게 승화시켜 내 겨레,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계의 수 많은 나라의 국민과도 공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도 선뜻 작품에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음악외적인, 말하자면 현실적인 문제 때

문이다.(오랜 세월동안 필자를 괴롭혀왔던 음악적 재능에 대한 고민은 이런 저런 기회를 통해 웬만큼 극복되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음악 작품은 문학이나 미술 작품에 비하면 그것이 발표되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며, 또한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크다. 특히 음악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음반에까지 담아서 유통·판매라는 과정까지 거치려면 필자와 같이 음악 변방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명 작곡가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다. 즉, 든든한 후원자가 있든가 아니면 최소한 유명 음악대학에 적(籍)을 두고 있어야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차선택-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최상책이라고 할 수 있는-으로 근래 새롭게 눈을 돌린 음악 장르가 바로 '가곡'이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최소 몇 십 명의 연주자가 필요한 관현악곡과는 달리 가곡은 기본적으로 한 명의 성악가와 한 명의 반주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주가 가능하다. 요컨대, 현실적으로 볼 때 가곡은 가장 연주가 용이하고, 또한 음반 제작비도 비교적 저렴할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도 여타 음악 장르에 비하면 용이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돌발 음악 퀴즈 하나...

다음 중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음악인은?

- ①성악가 ②기악가 ③작곡가
④음악평론가 ⑤음악학자

정답은 물론 ①성악가이다. 얼마전, 속칭 세계 3대 테너 내한 공연이 있었다. 그 때 그들이 챙겨간 게런티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아는 분은 인기 성악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새삼 실감했을 것이다.

국내 음악인 중에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연주 수입이 가장 많은 음악인은 단연 성악가이다.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스트는 아무리 지명도가 높고 인기가 있어도 수입면에서는 성악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작곡가도 성악가의 주(主)레퍼토리인 가곡을 쓰는 작곡가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

작곡가 최영섭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 그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 단 한 곡으로 벌어들이는 한 달 평균 수입이 웬만한 대기업 중견 사원 월급과 맞먹는다고 한다. '가고파'의 작곡가 김동진은, 그 동안 그의 가곡 작품이 저작권법만 제대로 적용되었더라면 대재벌이 되었을 분이라고 한다.

가곡 작곡가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유명 스타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국민 가곡 '비목'의 작곡가 장일남이다. 하지만, 교향곡이나 오페라(뮤지컬이 아닌 정통 오페라)를 작곡해서 일약 스타가 되는 일은 현재의 우리 음악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곡 작품은 성악가까지 유명 스타로 만들기도 한다. '명태'는 바리톤 오현명을, '목련화'는 테너 엄정행을 스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가곡 작곡은 작곡가-특히 돈 없고, 인맥·학맥 없는 무명의-라면 누구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 신(新)천지 같은 음악 장르인 것이다.

II. 그러나 가곡 작곡은 쉬운 게 아니다

언젠가도 모 음악지를 통해 언급한 바 있듯이 가곡 작곡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 시가 소설보다 단지 길이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시 쓰는 게 소설 쓰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할 수 없듯이 가곡 작곡 역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현악곡 작곡보다 무조건 더 쉽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가곡 작곡은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작곡가에게는 관현악곡 작곡보다 가곡 작곡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통념상 가곡 작곡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학 작곡과 커리큘럼에서도 가곡 작곡은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1학년 과정에서 고작 한 두 학기 정도로 끝내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곡계에서조차 가곡 작곡가는 그 실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학에 몸담고 있는, 소위 교수 작곡가들에게는 더더욱 이러한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지명도가 높은 교수 작곡가일수록 가곡 작곡에 전념하는 분이 드문 것 같다. 그 결과, 한

국 가곡 중에서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명가곡이 드물고, 성악가는 또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가곡을 별로 애창하지 않는다.(성악과 입시에서 한국 가곡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어쨌든, 현재 한국 작곡계의 풍토가 이러한데, 그래서 수 많은 작곡 전공 졸업생들의 창작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가곡이 음악 애호가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음악 장르라는 사실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가곡 작곡을 경시하는 현재의 작곡 풍토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III. 한국 가곡 작곡가들은 우리말을 잘 모른다

가곡 작곡이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악곡 작곡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학, 좀더 좁게 얘기하자면 문학에 대한 탁월한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가곡 작곡가는 음악적 능력과 문학적 능력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하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양 음악에서는 슈만과 같은 작곡가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슈만은 ‘시인의 사랑’과 같은 불후의 명가곡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며, 슈만의 뒤를 잇는 브람스 역시 문학에 탁월한 소양이 있었던 작곡가였다. 이에 비해, 한국 가곡 작곡가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 어학적 소양마저 부족한 작곡가들도 있다. 그냥 음악적 재능만으로 가곡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시(노랫말)와 가락이 따로따로 노는 가곡들이 많다. 가령, 가곡의 조성만하더라도 시와 가락과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 조성적인 것, 무조적인 것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다시 단조적인 것, 장조적인 것, 계면조적인 것, 복합조적인 것, 약간 비조성적인 것 등 일일이 다 예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다양한데,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가곡들이 거의 장·단조적인 조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시는 장·단조 가락에는 잘 맞지 않는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 내게 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원손잡이오
내握手를받을줄모르는—握手를모르는원손잡이오….(李箱의 ‘거울’)

이런 전위적(前衛的)인 시에는 현대적인 무조 가락이 제격이다. 하지만, 전위적인 시에도 또다른 분위기의 시가 있다.

해골 파먹어 들어가는 벌레처럼
산에 달이 지고 있다.
하늘은 어둡고 땅은 째깍해
산은 허깨비같은 큰 키로 일어나
그림자로 나를 덮는다.
나는 그것을 덮고 잔다.
이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성선의 ‘벌레 시인’)

앞의 시, 즉 ‘이성’의 거울이 서구적 분위기의 시라면 이 시는 전위적이면서도 동양적이다. 따라서, 이 시에는 동양적인 신비함이 풍기는 무조 가락을 붙여야 제대로 노랫말을 살릴 수 있다. 다음의 시는 반(半)조성적, 반무조적 가락에 어울리는 시이다.

심심할 때면 날저무는 언덕에 올라
어두워 오는 하늘을 향해 나발을 불었다.
발 밑에는 자욱—한 안개 속에

學校의 지붕이 내려다보이고
동리 앞에 서 있는 古木우엔
저녁 까치들이 짓고 있었다….
(김광균의 ‘언덕’)

이 시는, 일종의 이미지즘적(imagism的)인 시로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한다. 이러한 시에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가락을 붙이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극도로 감정을 절제시킨 담담한 가락으로 처리해야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난다. 가락에 클라이맥스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조성 처리 또한 애매모호한 것이 좋다.

반면에, 다음의 시는 확실한 조성-그것도 단조-의 가락에 잘 어울리는 시이다.

빛속에서 쑥새가 운다
한 개의 별이 되어
창 밖을 서성이던
당신의 모습도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이면
당신의 영혼은
또 어디서 비를 맞고 있는가.
(도종환의 '쑥새')

다음의 시 역시 조성적이다. 그러나 이 시는 앞의 시와는 달리 단조 가락에 보다는 계면조 가락에 더 잘 어울린다. 즉, 국악적인 가락(좀더 구체적으로는 남도 계면조 가락)에 잘 어울린다.

풀피리 하나만으로 가오리.
산과 바다 그 사잇길로
풀피리 하나 짙어지고 나는 가오리.
때로는 別途岳에도 들리리.
아스름히 피어오르는 실날 달이야
나를 따라 나서면 되오리.
문득 바람오니 허공은 넓고
어스름 내린 길로 세상이 눈뜨리....
(최명길의 '풀피리 하나만으로')

이 시는 매우 토속적인데, 특히 '-가오리', '-들리리', '-되오리' 등 영탄적(詠歎的)으로 처리한 종결형 어미(語尾)가 풀피리 가락을 연상시킴으로써 더더욱 국악적인 계면조의 가락을 요구하고 있다.

순전히 시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김동진 주옥같은 가곡도 옥에 티가 많다. 가락이 위낙 아름답기 때문에 이러한 티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랫말과 가락의 부조화를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 특히,

'수선화'는 마치 천상의 노래처럼 순결하고, 숭고한 가락의 가곡이어서 옥에 티를 미처 발견할 여지조차 없는데, 문제는 여타의 많은 한국 가곡들이 가락이 별로 빼어나지도 못하면서 노랫말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가곡은 좀더 조성이 다양해져야 하며, 박자 또한 그래야 한다. 박자가 시의 율격에 따라 좀더 자유롭고, 탄력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노퍽에 따라, 또는 노면, 교통량, 그리고 신호등에 따라 걸음걸이의 속도나 보폭 등이 달라져야하듯이 당연히 가곡에서 박자도 시의 율격이나 호흡, 분위기 등에 자연스럽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작곡가가 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물론 별도로 문학 수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작곡 전공 과정에도 문학 관련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어학 관련 과목인 음운론, 문법론 등과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 작곡가가 한국 어학이나 한국 문학을 모른다는 것은 한국인 성악가가 한국어 디션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외국 유학과 출신이 득세하고 있는 작금의 음악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다. 명(名)한 한국 가곡이 탄생되기는커녕 신세대일수록 한국 가곡 작곡을 기피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가곡의 역사도 어언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토착화'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슈퍼 콤플렉스, 즉 서구적인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콤플렉스 때문에 체격 또한 커야 미남 미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돼지 같은 가축도 서구화 되어 바야크서니 요오크서니 하는, 맛은 지지리도 없고 덩치만 큰 돼지만 살아 남고 토종 돼지는 이제 그 씨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소위 신세대 유학과 작곡가일수록 우리에게 별로 당위성이 없어 보이는 서구의 무조 음악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심하다.)

IV. 한국 가곡은 현재 진행형의 노래

국악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현재 우리가 애창·애청하고 있는 한국 가곡이 음악적 혈통으로 봤을 때 우리 음악 쪽보다는 서양

음악 쪽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알 만한 사람들에게는 별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겠지만, 원래 이 땅에는 진짜 순수한 한국 혈통을 가진 오리지널 우리 가곡만 존재했었다. 일명 ‘만년장환지곡’ 이라고도 불리었던 전통 가곡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통 가곡은 고려 때 시작되어 조선 후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던 양반·사대부 계층(혹은 중인)의 노래였다.(그래서, 이 노래는 바른 노래라는 뜻으로 정가(正歌)라고 했으며, 그 밖에 민요나 잡가와 같은 대중적인 노래는 속가(俗歌)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전 ‘서양 음악’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수입되면서 기존의 전통 가곡과는 다른 또다른 양식의 가곡이 탄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가곡’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 가곡의 선구자는 홍난파로 보고 있으며, 그가 작곡한 ‘봉선화’를 한국 가곡의 시초로 보는 것이 작금의 음악 상식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늘 ‘왜 하필이면 홍난파가 한국 가곡의 선구자가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또는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등등 역사에서는 가정(假定)이란 것이 참으로 부질없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순남 같은 음악가가 한국 가곡의 선구자가 되었더라면 오늘날 한국 가곡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별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지만, 주지하다시피 홍난파는 일반 음악 애호가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참으로 비(非)민족적이고, 반(反)민족적인 음악가였다. 이제서야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의 친일 행적(그 전에는 주로 음악학자 노동은 교수에 의해 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판되었지만)은 정치적인 문제로 일단 제쳐둔다고 치고 그의 그릇된 음악관(音樂觀)에 대해서 만큼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홍난파는 ‘음악의 서구화야말로 곧 음악의 선진화’라는 엄청난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었다.

...(전략) 동양 음악은 單調에 흐르기 쉬움에 반하여, 서양 음악은 변화성이 풍부하고, 하나는 정적(靜的)이요, 보수적(保守的)임에 반하여 하나는 능동적(能動的)이요 진취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 같은 율동이라 하더라도 서양 음악에 있어서는 강약의 도가 명백함에 반하여, 동양 음악은 천편일률적이라 할 수 있으니 어떠한 악곡을 연주함에 있어서든지 자초지종 동일한 종류의 악기가 실새 없이 꼭같은 步調와 강약으로 齊奏함으로 인하여 듣는 사람에게 지리멸렬의 감을 주게 되는 것은 음악으로서의 최대 결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인용문은 홍난파의 ‘東西 음악의 비교’라는 글의 일부인데, 여기서 우리는 홍난파의 음악관이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사실, 서양 음악은 우리에게 수입된 게 아니라 ‘침투’된 것이었다. 당시 우리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홍난파 같은 인물도 당시의 불행했던 시대가 만든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서양 음악이 침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가곡이 바로 한국 가곡이었으니 한국 가곡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비한국적인 노래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 가곡은 노랫말과 작곡자를 빼고 나면 영락없는, 아니 어설픈 서양적인 노래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곡은 현실적으로 우리 음악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음악적 혈통이야 어찌됐든 한국 가곡의 저작권이 바로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가곡을 ‘한국인(韓國人) 가곡’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고, 음악 평론가 이강숙은 ‘준(準)한국 가곡’이라고도 했다. 요컨대, 현재의 한국 가곡은 ‘토착화’라는 큰 음악적 과제를 안고 있는 미완성 형태의 음악인 셈인데, 이를 좀더 긍정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의 노래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해온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가곡의 본질이나 정체성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안일했던 것이다. 물론, 현재 애창·애청되고 있는 한국 가곡 중에서 토착화가 비교적 잘된 가곡도 다수 있긴하다. 산유화



△슈베르트 「미완성교향곡」 1악장 초고

(김순남 곡, 김성태 곡), 보리 피리(조 념 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곡) 등등... 그러나 이러한 가곡들은 공통적으로 민요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한국 전통적 개념의 가곡은 비(非)민요적인 것이다. 즉, 민요와 가곡은 근본적으로 음악적 혈통과 신분이 달랐다.(전통 성악곡 중 가사(歌詞) 같은 노래는 가곡과 민요의 혼합적 형태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곡들은 큰 고민없이 서구적인 장·단조 가락으로 씌어진 대부분의 한국 가곡에 비하면 토착화에 상당히 접근한 노작(勞作)이요, 수작(秀作)이라고 할 수 있다.

V. 토착화의 걸림돌, 화성

필자의 음악적 판단으로 볼 때, 한국 가곡에서 가락이나 리듬의 토착화는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화성의 토착화가 아닌가 싶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전통적 개념의 우리 음악에는 화성이라는 요소가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체계적인 화성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음악 상황에서는 화성이 가락이나 리듬보다 더 중요한 음악 요소가 되고

말았다. 현대의 일상 생활에서 자동차나 컴퓨터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듯이 화성 역시 서양 음악 영향권 내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 음악 상황에서는 화성이 자동차나 컴퓨터와 같은 개념이 되고만 것이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필요악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서양 음악 어법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지는 한국 가곡 역시 화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만약, 한국 가곡의 반주를 피아노가 아닌 전통 국악

기로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화성에 대한 토착화에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작업을 시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명이 바로 나운영이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민족 음악 수립은 서양 음악의 한국적 섭취와 국악의 이론적 체계화 그리고 음악의 대중화 운동 전개에 있다. 이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양 음악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인 和聲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나운영 지음, 세광 음악 출판사 간행 ‘和聲學’ 머리말 중에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선 서양 음악 작곡과에서도 전통 국악 관련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한국인 영문학자가 우리말을 모르면 안 되듯이 한국인 서양 음악가는 우리 전통 음악을 기본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국악인은 서양 음악을 모르고, 서양 음악인은 국악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화성의 토착화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화성의 토착화 작업에 누구보다도 의욕이 넘쳤던 나운영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후학들에게 수 많은 과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VI. 아쉽게 맺는 말

화성의 토착화 못지 않게 한국 가곡 창법의 토착화 및 개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말은 이탈리아어와 음운적인 특징은 물론 문법적인 특징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 가곡을 벨칸토식 창법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독일 리트(lied)식 창법으로 불러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연구없이 주로 벨칸토식 창법에 의존해왔다. 한국어 디션조차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성악 전공과에 한국어 디션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예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기 성악가 조수미의 한국 가곡 음반이 날개 돋힌 듯 팔리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조수미의 한국어 디션은 너무도 엉망이다. 마치 이탈리아의 유명 프리 마돈나가 매우 서툴게 한국어 디션을 하는 것 같다. 신영옥도 한국어 디션에서 만큼은 조수미와 오십보 백보다. 한국 가곡에 관한 한은 그래도 국내파 성악가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가곡 창법에 대한 문제는 천상 국내파 성악가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기법이전’이란 말이 있다. 요컨대, 음악에서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음악 내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가곡 작곡법에 있어서도 가락, 리듬, 화성, 반주 등의 기법을 아무리 훌륭하게 구사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곧 명가곡 탄생을 보장하는 게 아닌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곡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며,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가곡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법 훈련과 더불어 정서적인 수련과 연마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작곡가가 꽃을 주제로 한 가곡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며, 이별의 아픔을 모르는 작곡가는 이별을 주제로 한 가곡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김원호의 ‘언덕에서’가 기법 이전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가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가곡은 기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매우 평범하고, 평이

한 가곡이다. 가락도 그러하고, 반주 파트도 그러하고, 음악적 세련미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곡은 듣는 이에게 심금을 울리는 강렬한 무언가가 있다. 이 가곡 속에 담겨 있는 절절한 이별의 아픔 때문이다. 작곡가 김원호는 젊은 시절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여인과 그만 헤어졌다고 한다. 그러고나서 그는 오랜 세월을 아픔과 방황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이별의 아픔을 바탕으로 해서 작곡한 가곡이 바로 언덕에서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가곡이니 듣는 이에게 어찌 감동이 안 되겠는가.)

그러나, 요즘의 젊은 작곡학도들은 좀 지나칠 정도로 기법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법을 찾아 유학이다 뭐다해서 끊임 없는 방황을 한다. 문학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문학 작품을 잘 쓰는 게 아니듯이 화성학이니 대위법이니 악식론이니 하는 따위의 작곡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곡을 잘 쓰는 게 결코 아닌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같이 가곡이야말로 현재 우리의 음악 현실로 보아 가장 경제적인 구조의 음악 장르이며, 그러므로 재야권(在野圈)에 있는 작곡가들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평등 구조의 음악 장르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문(專業) 작곡가가 탄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음악 장르가 바로 가곡인 것이다.

그럼에도 가곡 작곡법에 관한 변변한 전문 서적 하나 제대로 없는 게 현재 우리 음악계의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지적한대로 젊은 세대의 작곡가일수록 가곡 작곡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세대 작곡가 중에는 김규환, 김연준, 이수인 등과 같은 가곡 다작가(多作家)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맥, 학맥 등 가진 것은 없지만 문학과 음악성을 겸비한 패기 있고, 야심만만한 젊은 작곡가가 웅비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만큼 많은 것이다.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를 능가하는 명가곡 작곡가가 우리 작곡계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이 글을 맺는다.

속초예술

나의 연극 음악론

남 상 진 | 속초연극협회

1. 연극음악 작업과 현대음악 듣기

현대음악(Contemporary music)의 이해와 감상은 나에게 있어서 연극 음악을 15년 작업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요즘 사람들의 경우 현대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먹어 보지도 않고 맛없다는 식의 판단을 앞세운 이 들이 있다. 이것은 편협한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술가는 스스로 창작자인 동시에 감상자이기도 하다. 현대음악, 즉 오늘의 음악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대음악은 최선봉의 예술가들이 어제의 예술이 아닌 오늘의 새로운 예술 형태인 아방가르드 그리고 제1차 대전 전후의 다다이즘과 같은 기성 일체의 권위, 전통, 사상, 예술형식의 부정과 파괴를 선언하고 실천에 옮긴 예술운동의 하나인 것이다. 1차 대전 후 폐허에서 파생된 많은 허무의 소산은 근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후 슈트라우스,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초현실파 등 새로운 장르들로 나타났다. 현대음악도 1918년 드뷔시가 죽기까지의 음악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다. 어쩌면 낭만주의 요소인 정서성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라 본다.

오늘날 가까이 생존했던 R. 슈트라우스 음악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음악은 전시대의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추호도 앞서 나가지 않았기에 누구나 듣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일반적인 일반인의 청각은 음악의 조건 즉, '정서와 구성'이 균형 잡혀 있을 때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의 음악은 예전의 두 가지 주체인 정서와 구성의 그리고 기존의 형식과 사고를 깬 형태로 나타났다. 이전의

형식미나 감정미와는 다른 새로운 음악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추상뿐만이 아닌 작가주의적 사고와 지성 세계에게까지 미의 거점을 대하게 된 것이다. 종래의 의미의 형식이나 정서는 별로 없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형식이나 정서의 세계, 그리고 선구자적인 그들의 고민과 애정, 새로운 음악에 대한 어떤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존의 음악과는 판이하게 다른 현대음악이 쉽게 가슴에 와 닿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상반된 생각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감상한다면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으리라 본다.

현대음악은 고전음악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일차원적이 아닌 입체적 시각으로 보면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은 같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에 와서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기계적이고 더 상식을 파괴한 현대음악도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 역시 급변하는 사회의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쩌면 현대예술은 추상 세계뿐만이 아닌 끊임없는 발전적인 사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해서 어려운지도 모르겠다. 예술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게 감정적인 음악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아 내용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악 감상의 순간은 음의 결합에 의한 기분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음악미 이므로 깊이 감동에 잠기려면 음악 속으로 몰입하고 순응해야 한다.

학문, 도덕의 이해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지만 예술 감상의 양식은 오로지 개인의 내적 기준에 의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거기에는 감

상자의 예술과 인생의 결부 여하로 논의될 수 있다. 예술이 감정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느끼는 입장 역시 감정에 의해서 수용 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괴테는 우리를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시킨 것 역시 예술의 조화라고 강조한바 있다. 음악은 고독이다. 예술은 모든 인간이 고독한 시간에 찾아온다. 그 중에서도 음악만은 나만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곡의 음악을 듣고 있어도 듣고 있는 동안은 각기 사람마다 오로지 고독의 세계 속에서 놓고 있는 것인지 각기 나름대로 어떤 즐거운 경지 속에 황홀함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음향 사이의 고독을 잘 이겨내는 자만이 음악 속에 깊이 몰입해 즐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고독은 수동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얻어 지는 것이다. 음악 감상이 관능의 쾌감에서 감정의 고향으로 또 정신의 함양에까지 직선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음악에 대한 수동적인 작용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自我)이면서 내가 아닌 경지, 그것이 꿈꾸는 상태, 자기를 망각해 버리는 순간 실로 음악을 즐기고 느끼게 하는 경지, 그것은 비판과 이유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예술가란 보통 상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자기 본의의 고집불통인 것이다. 바흐, 베토벤, 바그너, 드뷔시 등 다들 손댈 수 없는 훌륭한 고집과 창작으로 사는 낙인(樂人)들이다. 바흐의 구약, 베토벤의 신약성서, 바그너의 악극, 그리고 천재들인 모차르트, 프로코피예프, 부조니 외 모든 거장들의 음악들, 신고전주의 스트라빈스키, 무조음악 12음주의 쇤 베르크, 뫼지크 세리엘르, 우연성의 음악 존 케이지 등 많은 현대음악가들, 그들은 수학공식처럼 몇 백년을 이어온 음악구조를 새롭게 창조한 위대한 음악가들이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대음악을 다시 한번 듣고 천천히 또 생각해 보자

주) 1. 신고전주의 : 대위법적 수법이나 르네상스, 바로크로부터 여러형식 (푸가, 마드리갈, 파사칼리아, 토카타)을 현대적인 화성이나 리듬, 조성, 선율, 음색 등을 사용해서 재현시키려 하고 있다.

2. 12음주의 : 한 옥타브 속에 존재하는 12개의 다른 음을 어떤 중심음에 관계지우는 일이없이 평등한 위치

를 주면서 작곡하는 기법으로 조작적인 무조성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을 쇤베르크가 1923년 상호간에만 관계 맺어진 12음에 의한 작곡기법은 표현주의적 무조기법에서 음렬작법을 거쳐 완성된 무조적 기법이다.

3. 우연성 음악 : 전자음악이나 컴퓨터음악과 결부되고 있는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급진적인 산물중의 하나이다. 작곡자나 연주자, 또는 연주자와 작곡자에 의해 제시된 음악재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표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음의 처리에 대해서는 하등의 법칙성이나 제약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다. 연주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창작은 녹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보존할 수 있다.

참고 : 현대음악의 이해 (예술세계 문예진흥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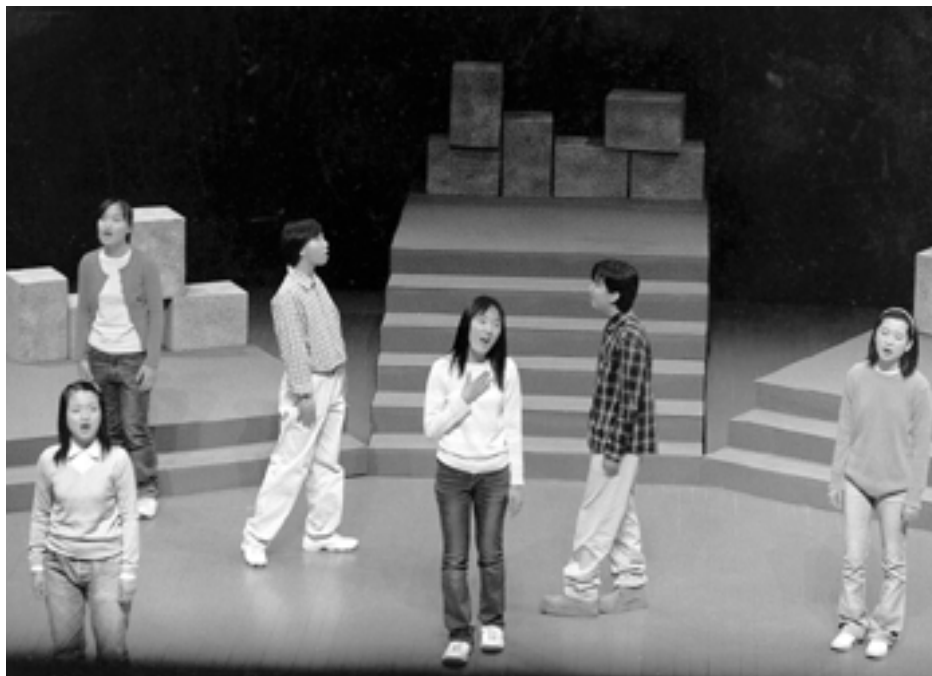
2. 극음악

극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이 극(연극, TV 드라마, 영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극에 있어서 음악은 이미 무성영화시대에 도입되었다. 화면에 나타나는 그때 그때의 감정적 긴장감과 리듬에 걸맞는 음악적 반주를 통해서 화면 속의 사건을 청각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것이었다. 영상을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충 하고자 하는 하나의 기계적이고 우발적이며 도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음악 삽입의 원칙은 극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철칙으로 지켜져 왔다. 화면 위에 시각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관객들의 수용 과정에서 특정한 변화를 겪어내야 할 경우 관객들이 화면 속의 시각적 표현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더 어렵거나 더 쉽게 더 선명하거나 더 부드럽게 더 거칠거나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음악은 일종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관객들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 시각적으로 제시한 대상들과 관객들의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음악의 삽입은 묘사 대상의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묘사대상은 이 같은 음악 삽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색상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영화감독)는 영화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영화 속에서 음악이 이를테면 서정시의 후렴구처럼 작용하는 수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후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인이 사로 잡혔던 그 원초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며, 시인이 창조한 새로운 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며, 마음은 시의 세계를 직접적이고 또한 새롭게 경험하도록 한다. 내 작품에서 음악은 단지 일차원적인 ?그림설명?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음악이란 내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소리를 지니고 있는 이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며 인간적인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설혹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만들어진 유성영화에 음악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고 따라서 영화음악은 영화 예술적으로 점점 더 흥미롭고 구상되어지는 음향으로 대체되는 것이 단연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의 작품 「안내인」과 「향수」를 보면 음악을 음향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적 형상이 실제로 총체적인 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아마도 의식적으로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영상적으로 변

형된 세계와 음악적으로 변형된 세계는 서로 대립적이며 평행선을 긋는 세계를 형성한다. 적절하게 조직된 유성(有聲)의 세계는 그 본질상 이미 음악적이며 일종의 훌륭한 영상적 음악인 것이다.

극(劇)은 결국 소리의 영역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소리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극은 무성 영화가 될 것인즉 소

리를 지닌 세계의 형상과 모든 소리의 표현력을 상실한 묘사가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타르코프스키의 봉인된 시간

3. 연극음악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교과서적으로 서술된 주종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서술함을 밝힘

극음악은 모든 희곡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 용어를 확대하면 극중 모든 소리를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모든 공연의 한 주요 요소로써 간주될 수 있다. 음악은 모든 음향효과, 배우의 음성, 노래 및 기악 등을 포함한다. 니체는 ‘음악의 정신으로부터 비극이 탄생했다’라고 말했다. 그의 서식 환상을 전적으로 따르든 따르지 않든 연극의 기원이 제의, 무용 및 찬가 또는 서사시의 영창(아리아)등이 완전히 구별되지 못했던 희미한 과거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음악이 연극 공연에 있어서 하나의 의미 전달체계로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희미한 과거의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희랍비극이나 고대 희극에서 코러스의 송가가 노래되고 또한 무용으로 표현됐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음악을 완전히 배제하는 유형의 연극은 연극사를

통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보다 훨씬 많은 연극들이 노래와 춤과 배경음악을 사용해 왔다. 영화나 TV 드라마 경우 배경음악이 거의 필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연극의 한 형식임에 틀림없는 오페라는 희랍비극의 대화가 말해졌기보다는 노래 됐다고 믿었던 르네상스 학자들의 가정에 그 기원을 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고전극, 판소리, 마당놀이, 제(굿)등도 음악극 형태로 음악을 사용해 왔다.

연극을 종합예술작품으로 보는 바그너의 개념은 그 안에 모든 예술들... 즉 연극의 언어적, 음악적, 시각적, 의미전달체계들이 완전히 융해된다는 개념은 음악의 연극적 기능에 대한 극단적 견해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드라마의 본질은 행위의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는 달리 바그너는 드라마의 구성을 분위기로 대치시켜 외부적인 행동을 극소화시키고 내면의 심리적 반응을 강조하였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표현수단은 행위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고 있다. 고아한 사랑의 감정 매우 절제된 구성으로 축약시켜 표현한 점이라든가 낭만적인 전설을 실제의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 사용된 모멘트의 정확성은 드라마의 천재로써 바그너의 역량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음악은 연극공연의 의미전달체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처럼 음악은 삽입된 노래를 통해서 행동의 흐름을 깨뜨리고 깊은 감정의 순간들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브레히트는 음악의 사용을 연극의 다른 의미 전달체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상호간에 대조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했다. 연극 속의 음악을 통해서 행동의 도덕적, 정치적 교훈들을 뽑아내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보다, 쉽게 기억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20세기 초 일어났던 신 무대술의 개혁은 상징주의 운동에서 싹텄다. 소위 신무대술(아돌프 아피아나, 고든 크레이그에 의해서 제창됨)의 두 사람은 모두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연극을 일상적 존재의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의 표현을 위한 매개체로 변형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들 두 사람 역시 바그너의 음악에서 깨우침을 받았다.

음악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

왜냐면 음악은 영혼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내면의 삶을 합리적인 의미에 걸려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극의 공연을 예술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돌프 아피아는 표현매체의 위계를 정했다. 제일 상위에는 연극 정수를 표현해 주는 음악을 놓는다. 시간성을 가지고 청각에만 호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각적 표현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간성을 떨 수 있도록 전이되어야 한다.

배우는 그의 음성과 육체를 음악에 종속시킴으로써 연극의 매체가 될 수 있다. 배우의 움직임을 통해서 음악의 시간적 패턴은 무대장치와 공간적 패턴으로 전이되어 간다. 아피아는 “연극 예술의 본질은 음악이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1989년 6월 17일-26일까지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한 극장에서 상연된 몇 편의 아방가르드 연극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예술계와 언론계 그리고 객석은 온통 열광과 환희 찬탄과 감격 동시에 분노와 항의 경악과 야유로 술렁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아방가르드냐? 파괴냐 폭력이나? 예술이나?

문제의 장본인은 벨기에의 젊은 예술가 얀 파브르였다. 그 당시 그는 34살의 젊고 야심있는 연극 제작자이고 감독이며 또한 안무가이고 조형 미술인 이었다. 파브르가 직접 극본을 썼다, 작품의 특징은 벗은 알몸이었다.

연인들의 옷을 벗겨 신비스럽고 정적인 미를 묘사하고자 했던 작품 “아침 네 시의 성”은 두 명의 여주인공 막달레나와 마르퀴제, 무대 전체의 해설자 구실을 하는 팝 가수 메리 포핀스, 기자로 생각되는 검은 양복의 두 남자 그리고 세 명의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 무용수 이집트의 스팅크스 상이 세트에 설치되어있다. 정적 속의 검은 양복의 두 남자가 걸어와 기자처럼 스팅크스의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댄다. 거의 암흑에 가까운 조명 두 기자와 스팅크스 사이에 침묵이 흐르면서 사건의 예감과 관중 속의 긴장감이 팽배해 진다. 이때 갑자기 기자들의 마이크에서 불꽃이 튀어나오고 곧이어 록 뮤직과 막이 오른다. 음악을 맡은 메리 포핀스는 무대 한 쪽에 서서 시종일관 무대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오는 구실을 했다. 때로는 쇠구로 노래

를 부르면서 이 극에서의 음악은 음악과 무대가 분리된 상태에서의 합침이 아니라 음악과 무대가 처음부터 혼연일체가 되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예술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성은 예술의 생명이다. 통일성이 없다면 연극은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좋은 예로 우리는 아피아 연극에서 아피아는 음악을 통해 통일성을 얻었고 크레이그는 연출가에게서 그 해답을 찾았다.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술 작품은 한 사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크레이그의 새로운

얼마 전 연극음악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이전까지 해왔던 음악선곡 작업과는 다른 음악 컨셉이었으므로, “왜 봄날은 간다 인가?, 연극에 대중가요를 삽입해…….”

“연극의 퀄리티를 저하시키는 게 아니야!” 하는 주위의 소리를 우려 했던것도 사실이다.

나의 작업은 종이 찢어붙이기 같은 스크립형태의 편집음악 작업방식이다.

상반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보고 작업의 한 형태로 인정해 주길바란다.

예술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성은 예술의 생명이다. 통일성이 없다면 연극은 예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나의 작업은 종이 찢어붙이기 같은 스크립형태의 편집음악 작업방식이다. 상반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보고 작업의 한 형태로 인정해 주길바란다.

연극 예술에 있어서 예술가는 바로 연출가이다. 어떤 작품을 가지고 공연 한다함은 바로 연출가 자신의 보편적 진실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는 것이다.

연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연출이든 배우든 모든 스태프까지도, 나의 경우는 어떤 순간에도 모든 소리를 감지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시끄럽게 들리는 음악 속에서도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유별날지 모르지만 오디오에서 모기소리처럼 흘러나오는 잡음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사람들이 잘 감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까지는 반복적인 훈련에서 나온 것이다.

연극음악 작업은 영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3-4일 남겨두고 텍스트를 넘겨 받을때면 당혹스럽다 내가 커피 자판기 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음향적으로 보면 무리가 없지만 음악적으로 보면 얼마나 난감한일이겠는가.

고민과 성의 없이 만들어진 연극을 어찌 무대에 올릴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예술 작업은 특히 자기만족 그리고 작품에 대한 책임과 신뢰 그리고 고민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때이다.

드라마적인 새마을연극같은 계몽주의사고에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대는 변했고 문화 또한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관객이 옛날의 관객이 아니라는 점이다. 386세대인 나도 재미없어 하는데 요즘 신세대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작품은 작업하는 이의 디자인이다. 평가는 관객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연극에 있어서 소리는 음악이건, 목소리이건, 혹은 음향이건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세계에는 스스로 매우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하다. 우리들이 올바르게 듣는 것을 배우고 사용하면 연극이든 영화이든 더 가까이 따뜻하게 가슴에 다가가리라 본다.



미래를 향한 마당극

박 영 미 | 연극협회 속초지부장

I

1960년대에서 70년대 대학가의 아마추어 연극형태로 선보이기 시작했던 마당극의 원조는 서투르고 거칠은 민속극 형식이어서 그것이 장차 한국연극사의 한 조류로 성장가능한지 미지수였다. 암울한 군사정권시대의 예술 또한 정치의 도구였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그런 연극을 제도권 관변 예술로 치부하는 젊은 대학극 세대의 민속극 회복운동이, 판소리에 대하여 탈춤에 대하여 새로운 조명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민요적 민화적 민담 세계 등, 민족문화의 근원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기 시작 한 마당극은 그런 민족적 성찰에다 대학인의 지적현실비판이 가미된 연극적 결정체이다.

II

민속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성행한 탈춤학습은 차츰 형식과 내용의 변모를 가져왔고 민속가면극이 지녔던 양반이나 파계승 야유와 비판이라는 민중극 형식이 이를 풍자한 현대적인 극형식을 확보하면서 마당극이란 이름아래 민중극

의 정체로 정립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마당극 세대들은 연극개혁을 위하여 마당극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하여 마당극을 운용하려 했다. 따라서 마당극은 사회운동 차원의 방편이었고 그만큼 연극의 차원을 확대 시켰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전통연희와 민간전파의 탈춤형식이 새로 수입된 서양예술양식에 밀려 한편으로 밀려났을 때 우리의 연극의식은 새로운 신극사조에 의하여 단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런 지도 모른다. 즉 우리의 연극의식, 넓게는 공연 예술의식은 개화기를 거치는 사이에 일종의 단절현상을 빚는다. 그런 의미에서 60-70년대는 정치경제 사회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





혁기였지만 연극사적으로는 연극 의식개혁이 자체적으로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마당극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시대이다. 이 마당극은 극장무대의 한정된 공간에 갇혔던 연극이 극장을 떠나서 공간을 확대하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담론과 비판과 설득의 장을 설정했던 개념에서 신극에 대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리얼리즘적 연극은 비판적 신명을 불리일킬 수 없다. 그러나 모순을 뛰어넘어 신명과 흥으로 막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마당극의 풍자적 기능을 사회적 항의 형식으로 담아내었던 마당극의 연극양식을 말하자면 극적이라기보다 놀이다운 것이 특징이다. 언어가 지닌 대사적 질서라든가 논리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명의 조성이 제일의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적인 의식보다 민중적 재담이 살아있다. 현장성, 자연 발생성, 즉흥적 구성이 바로 전승연희로서 민속 가면극 같은 민중극이 본질이며 그 속에 사회

현장성, 자연
발생성, 즉흥적
구성이 바로 전
승연희로서 민
속 가면극 같은
민중극이 본질
이며 그 속에
사회적 항의를
강화시키고 있
는 특징이 부각
된다. 마당극
은 민족적 시사
극 이자 사회극

적 항의를 강화시키고 있는 특징이 부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당극은 민족적 시사극 이자 사회극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마당극은 어쩌면 시대적 산물 이어서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사라지자 그 공격의 긴장미가 해이해진다. 그것은 마당극 세대가 마당극을 사회운동 차원의 방편으로 활용했을 뿐, 예술로 가다듬을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한 필박한 상황을 반영함에 예술로서의 자리 매김에 마당극은 아직 할 작업이 많다. 극장의 공간을 확대하고 의식의 차원을 높이면서 전통과 현대, 근원과 꿈과 낭만과 과학을 총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하다. 이에 마당극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이며 연극 예술로 돌아오는 문화가 터를 굳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 연극유산의 근원으로서 이바지 할 수 있는, 예술로서의 마당극의 미래에 기대를 걸어 보는 것이다.

속초예술



최 홍 영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특선
- 대한민국서예대전(예협) 특선
- 강원서예대전 특선
- 대한민국 교원미술대상전 특선
- 속초·고성군 서예교육연구회장 역임
- 강원연목, 강원도 서예가협회 회원
- 현. 대진초등학교 교감
-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904

봉서(封書)의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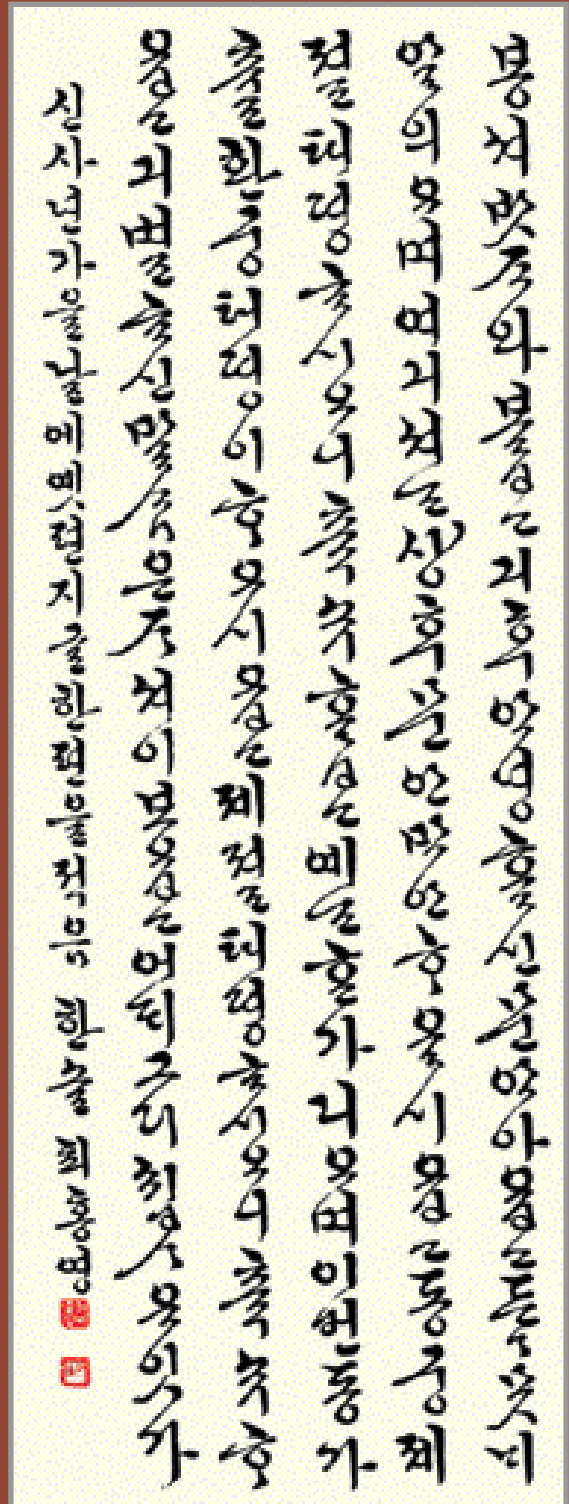
한글서예의 宮體란 궁중에서 宮女들이 쓰던 글씨체로서 宮女體라는 말이 줄어서 宮體라고 쓰이게 되었다.

궁체의 글씨체에는 정자체, 연한 흘림체 그리고 진한 흘림체의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요즘 정자체, 반흘림, 진흘림으로 나누기도 한다.

당시 정자체는 궁중에서 손윗분들인 大妃나 王妃에게 精誠스럽게 문안글을 보낼 때 썼고, 흘림체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私私로운 정을 나누는 書簡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본 作品은 진흘림 또는 封書라고도 하는데 자음과 모음의 변화가 무쌍하고 무질서한 것 같으면서도 질서정연 한 것이 그 특징으로, 朝鮮王朝 익조 문황제 배위신 신정황후 조씨전 서기 李氏가 천상궁이 윤판서께 보내는 편지글을 代書한 국문 글씨중 가장 뛰어난 명필의 일부분을 線質의 세련미와 곡선미, 공간의 여유, 氣品, 書格, 氣脈이 서로 통하는 생동감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노력했다.



옛 편지글 | 화선지에 먹 7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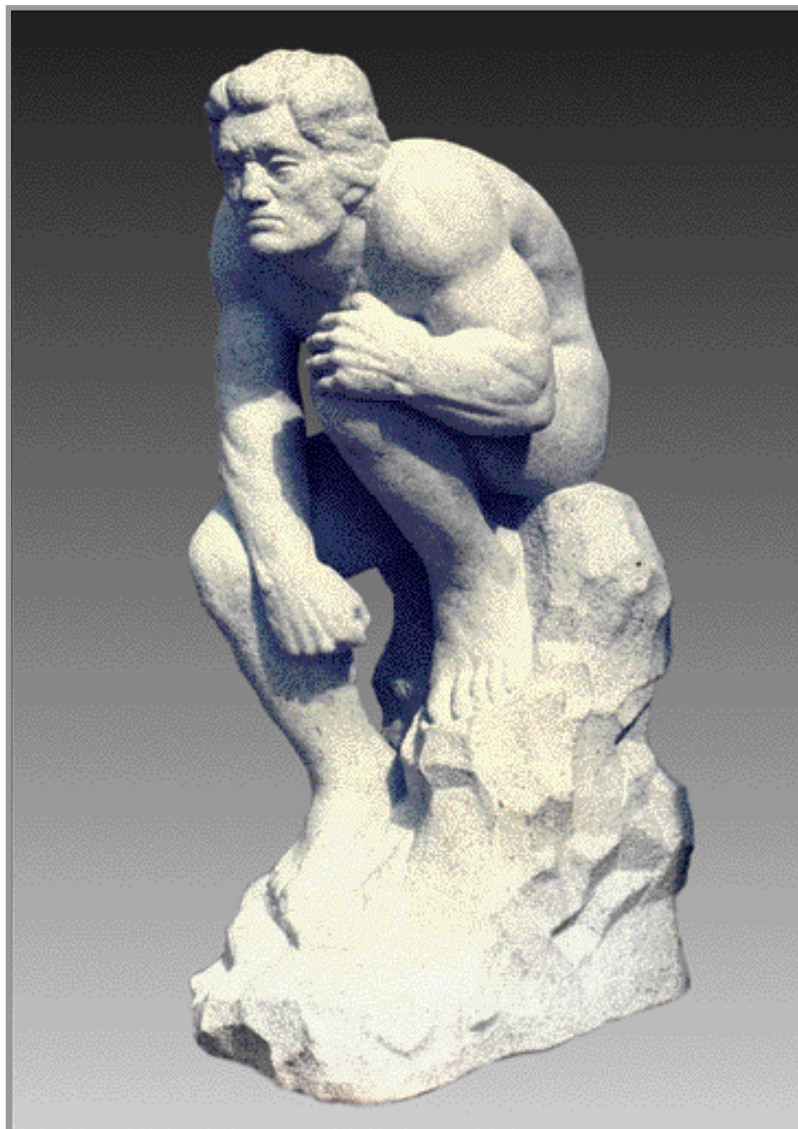
장승1리3반 | 수묵담채 2절

‘장승1리3반’은 실경산수의 수묵담채화로 소재의 지역인 양양군 서면 장승리는 대한철광 양양광업소가 국내 제1의 자철광 생산지로 유명하던 곳이었다. 철광산업이 번창하던 60~70년대에는 양양 시장경기를 좌우하던 굴지의 회사였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양양읍내에서 20여리 길을 걸어서 회사원의 복지시설인 목욕탕에 회사 자녀들을 따라 공짜 목욕을 하러 가기도 했으며 극장에서는 신나는 영화가 상설상영 되었으며 광업소 봉급날이면 양양읍내 식당 술집들은 흥청거렸다. 그러던 것이 철광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문을 닫고 이곳 사람들은 하나둘 읍내로 타지로 떠나갔으며 내가 3년간 근무했던 장승분교도 폐교되어 마을엔 빈집이 늘어나고 전후에 폐허된 마을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뿌리를 내린 장승1리 사람들은 옛날 중심가로 화려했던 시절을 향수하며 덕지덕지 붙인 스텐트지붕 아래에서 인간애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장성하여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간 자녀들이 명절이나 휴가철, 부모님 생신날에 모여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웃음소리가 무너진 담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하드웨어는 폐허돼 가고 있지만 그 속의 구성원인 소프트웨어는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우리 이웃 장승리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웃간에 무너진 담과 손자손녀들이 가기 싫어하는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로 연결된 전선과 조각밭에 채소를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생이 지붕위에 늘어진 전선을 따라 서편 산 너머로 흘러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윤재복

-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부전
 -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전
 - 강원도 교원미전
 - 강원 초등미술교육 회원전
 - 향토작가초대전
 - 양양서화회전
 - 양양서화회 부회장
 - 양양초등학교
- 양양읍 연창리1반 雲鄉畫室



웅태(雄態) | 화강석 110×140×200 〈진의종 전 부총리 소장〉

‘모난 정이 돌을 깬다’

지금부터 19년 전 내 나이 스물 다섯. 몹시 힘들고 암울했던 시절에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힘 모아 웅크리고 갈 곳을 찾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하려고 5톤이 넘는 돌을 사 놓고 그 크기와 무게에 눌려 며칠을 돌 주위를 맴돌며 웅크려 보기도 하고 위에 누워보기도 할 때 흰히 비추어 주던 보름달이 생각난다. 1년여 기간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모난 정이 돌을 깬다’는 변형된 속담과 ‘시작이 반’이라는 진리를 새삼 깨달은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

변변한 장비 없이 정과 망치로 만든 작품이라 더욱 애정이 가는 작품이지만 지금은 남의 손에 들어가 있어서 어느 구석에서 석화나 돌이끼가 끼어 있지는 않았는지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웅크린 모습은 그대로 일 것이고 앞으로도 천년이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장 국 보

- 강원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 1980~81 강원미술대전 입상
- 1982~2002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전
- 1982~2002 강원도 교원미전
- 1984 강원교원미전 추천
- 1984~98 영북미술교사전
- 1994 바심전
- 1998~2002 한국현대조각 초대전(MBC)
- 1999 설악해맞이 조각공원 초대
- 2001 제비리 초대전
- 2001 강원교원미전 추천상
- 2002 강원미술대전 추천작가

• 현 속초고등학교 재직, 설악조형연구회
033 632 9875 011 786 0875



란(蘭) | 유화



서문 일초

- 미협전 속초(87~2002)
- 국제 화우회전(90~2002)
- 아시아 미술초대전(94)
- 창미회 회원전(92~2001)
- 인물표현전(94)
- 소묘동행전(95)
- 디지털2000년 회원전(2000)
- 한국 여성공모전 금상(2001)
- 전업작가회 덕수궁전(2001)
- 한국여성작가회전(2002)
- 현. 국제화우회
전업작가회
한국미협
한국여성작가회
- 속초시 노학동 970-30

‘나의 대표작’에 작품과 글을 올리며...

정말 나의 대표작이 있을까?

학창시절 이후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번거로운 일상 생활속에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틈틈이 그림을 그려왔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까지 수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문지르고 긁고 뉘우치고 깨닫고 하여 많은 수고 끝에 이루어지는 것 임에 작품은 작가의 마음이요, 거울이요, 자화상이다.

자신의 회화세계를 찾고 추구하기 까지 오랜 시간과 인내와 고독한 날의 반복이었다. 앞으로 화도의 길은 멀고 높고 또 험하겠지만 소박한 꿈을 위해 언제나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인고의 수련을 벅삼아 정말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 작품의 ‘난(蘭)’은 잘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객관주의적 관조로 자아억제를 통한 내적 흐름으로 형상속에 담은 담담한 붓놀림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색과 사물을 조금 생략하여 단순화 하면서 질서와 균형을 조화시키고 배경색과 꽃색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부담없이 어울어져 편안한 마음의 표현이다.



母情 | 합성수지 83×62×90



장 승 복

- 강원대 졸
- 대한민국미술대상전
- 강원교원미전 초대작가
- 한국현대조각초대전
- 전국교사미술교류전 우수상
- 조각 「바심」전
- 잼버리기념 초대전
- 교원미술연구 발표전 금상
- 교원미술연구 발표전 추천상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암2리 2반 2번지



허 인 순

- 강원미술대전 입선
- 속초미협전
- 강원도미협전
- 현. 임광미술학원장
- 속초시 교동 774-5 21통6반



풍경 | 유화 72.5×60.5



속초미술협회 지 상 갤 러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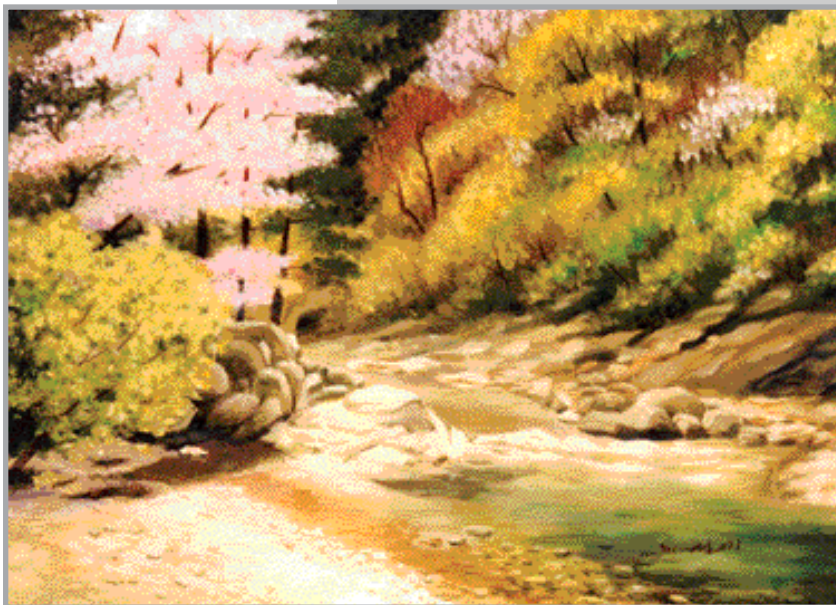


이 혜 경

-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
- '98 영남미술대전 특선
- 현. 속초미술협회원
- 영남한국화회 회원
- 속초시 교동 삼환아파트 108-902



보리



설악의 봄 | 유화 30호



이 선 미

- 강원대 사대 미술과 졸
- 강원교원미전
- 강원도미협전
- 향토작가초대전
- 강원서예대상전 우수상
- 강원서예전 입선 2회
- 설악회화대회 대상
-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입선
- 양양군여성회관, 조양동 수채화 강사
-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 5-104



안 치 홍

- 유네스코 쿤리에 출품
- 부산미술대전 출품
- 전국문화예술대전 출품
- ART비상전 창립전 출품
- 일본 동경메구로 가조엔소장 미술품 복원
- 속초미술협회전
- 현. 21세기미술학원장
- 속초시 교동 800-63 7/3



湖西踏盡由秦開長路行
暮不輟閒驢背睡餘開眼見
雲殘雪是何山

藝泉朴健七



박 중 철

- 설악회화대회 대상
- 강원서예대전 특선2회, 입선2회
- 속초시 중앙동 6/1 중앙상가아파트 302

漢詩一首 | 70×200



장 공 순

- 제16회창원공모전 (금상)
- 제37회동아일보국제Salon(입선)
- 제8회어촌,어항전 국사진공모전(입선)
- 제16회 강원사진대전(입선)
- 제1회 고성관광사진공모전(입선외다수)
- 속초사진협회

고성군거진읍거진1리5반43번지 거진수협
전화번호682-3996
핸드폰 011-364-7996

나의 사진이야기 NOW AND HERE!



Chaos

나는 약 15년전에 취미사진을 열
마간하다가 그만 두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남들처럼 좋은 소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변에서만 맴 돌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탓하던 사고 때문이다.

그 이후 여러작품집과 몇몇 전시장을 드나들며 사진
이 작가의 내면 의식세계의 표현이고 사회 대중과의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영상언어임과, 위
대한 사진가란 천부적인 재질과 기술적인 완벽함을
구사하여 사진을 잘 만들어내는 이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빚어지는 상황을 역사적, 사진
적 안목을 가지고 진실되게 기록해 나아간 이들 입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소재를 찾아다닌다. 만일 우
리가 Robert Capa나 Eugene Smit 같은 보도사진의
걸작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필경 세계대전
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발하기를 원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양심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날 나는 혼한 구름을 소재로 걸
작을 남겨 사진이 소재에만 있지 않음을 증명한 스킨
글리츠(A. Stieglitz)의 작품 ‘등가의 미학
(Equivalent)’ 앞에서 소재없음 보다 내 안에 있는 감
성의 부재를 먼저 탓해야 했다. 마음속 이야기와 은유
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상과 함께 감광될 때 사진은

빛나게 되는 것 같다.

NOW AND HERE!

이 말은 사진에도 통용된다. 좋은 소재가 있는 장소
는 가야만 한다. 그러난 소재만 쫓다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사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는 의미이다. 나는 요즘 이른 아침과 저녁 일몰 대, 그
리고 점심시간내에 작업을 한다. 내겐 최선의 선택이
다. 짧은 시긴대이지만 M16보다도 더 무거운 300mm
렌즈를 손에 들고 내 주위의 삶의 모습들을 확인더 가
득 프레이밍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다.

사진은 어떠한 장르이어야만 한다거나 장비의 문제
가 아니다. 생각컨대 사진예술의 가치는 내일이고 미
래이고 영원이다. 그러나 사진의 시점은 오늘이고 현
재이고 순간일 뿐이다.

촬영에는 내일의 기약이 없다는 말이다. 멀리있는 것
만을 동경하다가는 낙담하여 주저앉게 된다. ‘지금 여
기에서부터’ 사진을 하면 되고, 그것들은 형편이 닿는
대로 가면 된다.

무릇 사건에 있어서 현장부재증명(alibi)은 제시되어
야 유익하지만 사진에 있어 놓쳐버린 아쉬운 순간의
현장부재는 (No cut) 묵비(默秘)하고 싶은 수치일 따
름이다.



강 영 진

- 1993년의정부 회룡공모전(입선)
- 2002년강릉전국사진공모전(입선)
- 2002년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
- 속초사진협회

속초시금호동625-42
금호연립나동103호{동해공업사}
전화:637-6015
핸드폰:016-9556-4686

시선집중



최상후

- 속초사진협회 감사
- 속초 프로사진가협회 회장
- 속초사진협회

속초시중앙동 493-1
제일 사진관
전화:633-4125
핸드폰 017-371-3667

휴식





허 인 순

- 2002년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
- 속초사진협회

속초시교동774-5 임광미술학원
전화:636-2325
핸드폰:016-9347-2325

옛 담장



최하용

- 2002년고성관광사진공모전(동상)
- 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 2점)
- 속초사진협회

속초시청학동 485 청룡사진관
전화: 633-7859
핸드폰: 016-9898-7860

털중나리



공모전과 사진작가 되는 길

황 병 진 | 속초사진협회 회장

공모전사진이란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공모전 심사에서 입선이상의 점수를 얻어 협회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한 사진이다. 공모전은 전국에서 그 열풍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특성있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요즈음의 흐름이다. 이러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 위해서는 촬영테크닉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 공모전사진은 신선한 기획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내용을 담은 사진이어야 심사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특정주제를 가지고 정부기관 및 회사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으로는 물사진(수자원공사), 철강사진(한국철강협회), 바다사진(해군본부), 전기에너지사진공모전(전력공사), 국립공원공모전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길 사진(도로공사), 교통안전사진(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륜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화재사진(화재보험협회) 등이 있으며, 필름회사에서 자사 필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코닥필름 콘테스트 후지필름 창작 사진대전이 있다.

특히 관광사진 공모전은 전국지방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 고장을

홍보하기 위해 광역시, 도, 시·군에서는 관광사진공모전을 신설하여 관광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국 각 사진작가협회지부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작사진공모전을 시행하여 사진인구의 저변확대, 사진예술인 양성에 크게 도움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되고자하는 아마추어 사진인들은 처음부터 입회규정을 알고 공모전을 시작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참고로 회원입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레프팅의 묘미 제16회 군산전국사진공모전 입선 김형관

제 2조 : 자격기준

1. 정회원 : 본 회의 취지와 목적을 찬동한 만 20세 이상인 자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한민국 사진전람회를 비롯 본 협회 및 지부가 주최한 행사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 시·도미전 또는 사진대전 국내외 국제 살롱 등에서 5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최초의 입상, 입선 사진강좌 수료 또는 발표연도(개인전)로부터 기산하여 만 4년이 경과된 자.

2. 준회원

- ① 대한민국 사진전람회를 비롯 본 협회 및 지부가 주최한 행사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 시·도미전 또는 사진대전 국내외 국제 살롱 등에서 25점이상 득점한 자. 단 최초의 입상, 입선 사진강좌 수료 또는 발표연도(개인전)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자.

- ②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을 요망 할 시는 승격신청서 및 자격 득점경력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 인준을 받는다.

3. 단 위 규정 중

- ① 개인전 1회는 10점에 준한다.
- ② 1회 1작품 득점만 인정한다
- ③ 준회원 및 정회원은 공히 입회점수 중 사진강좌를 3회 수강한 실적이 있어야한다.(단 이수한 내용이 각각 달라야함) 정규대학 사진과와 전문대학 사진과를 졸업한자는 제외.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
- ④ 한사전 입선자 이상에게 입회경과 연도를 1년 감면

제 3조 : 입회 수속 절차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제 사항을 구비하여 지부 소재 지역은 당해 지부에 기타 지역은 가까운 지부에 신청한다.

- ① 본부 및 지부정회원 2명의 입회 추천서(서식 1호)
- ② 입회 원서(서식 2호)
- ③ 경력 신고서(서식 3호)
- ④ 창작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및 동작품.
- ⑤ 사진학과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첨부
- ⑥ 입회회비 및 1년분 회비
- ⑦ 신원증명서 첨부
- ⑧ 주민등록등본 1통

제 4조 : 입회심의

지부소재 지역의 입회원서는 당해 지부 간사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부장 의견서 첨부,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기타지역의 입회원서는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본부 이사회와 지부 간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모전이나 촬영대회, 사진강좌 수료 또는 개인전은 시작한 날짜로부터 창작 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입회할 때 유리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평가기준이 공모전마다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

행사명	최고상(대상)	입 상	입 선
한사전(국전)	10	7	4
국제살롱	5	4	3
공모전 및 시·도전	4	3	2
촬영대회	4	3	2

지만 동일하므로 평가기준 10가지를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된다.

공모전에서의 평가 기준

1. 강렬한 첫 느낌.

작품을 보는 순간 시선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끌어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호소력

2. 트리밍(크로핑)

효과적인 크로핑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전체적 이미지 구성 및 전달력 향상

크로핑 : 확대한 인화지의 주위를 잘라내는 것

트리밍 : 확대 인화할 때 불필요한 것들은 트리밍 자를 이용하여 필름 화일에 선을 그어 일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확대인화를 하면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주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

3. 테크닉

작품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종합적인 촬영 기술

4. 구도

모든 요소들의 조화에 의한 시각적인 만족효과

5. 프린트의 질

풍부한 디테일과 의도된 정확한 색조를 가진 사진인화 제작을 통한 촬영(렌즈)효과의 극대화

6. 내용 전달력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주변요소 등을 활용한 정확한 감정의 전달

7. 컬러의 조화

주제와 배경(부제)의 컬러의 조화 등 시선을 거슬리거나 위배되지 않는 전체적인 색의 조화

8. 스타일이나 창의성

차별화된 작품이 되기 위한 작가의 창조성 또는 실험정신

9. 생동감 있는 조명

시각적인 인상 또는 작품의 입체감을 붙여넣는 조명과 전체적인 콘트라스트의 균형

10. 신뢰성

지나치게 인위적이거나 해석적인 연출 기술의 배제

위와 같은 공모전 평가기준을 공모전 출품시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강원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부터 응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모전의 접수시기와 요강을 정확히 파악하여 마감일전에 미리 제출한다.

봄에 시작하는 춘천전국사진공모전을 시작으로 5월 단오제의 강릉전국사진공모전, 치악전국사진공모전, 태백전국사진공모전, 9월 강원사진대전의 창작공모전과 강원관광사진공모전, 속초관광사진공모전, 동해관광사진공모전, 원주풍물전국사진공모전, 고성관광사진공모전이 있으며 내년에는 양양관광사진공모전도 시행 될 예정이다.

도내에서만도 공모전의 수가 11가지나 되므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년에 수십점 또는 50%의 확률만 보더라도 10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착실히 점수를 획득해 나간다면 4년 안에 50점 획득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부단한 사진창작 활동과 노력이 뒤따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일단 전년도 공모전 작품집을 보고 철저한 분석을 하여 소재를 촬영하고자하는 장소로 가서 촬영, 현상, 사진인화까지의 과정을 수 없이 반복해야만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공모전은 이미지의 특징을 살린 표현력과 객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감동, 메시지,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며 렌즈, 필름, 인화지, 액세서리, 프린트의 특성을 살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응모하고 낙선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작품에 따른 분석과 자기 반성을하여 재촬영하여 응모하는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있어야만 본인의 사진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진인화는 가급적이면 인화지 폴로 인화해서 출품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화풀이란 사진에 찍힌 필름의 양쪽 끝부분이 잘려 나오더라도 인화지 사이즈에 맞추어 인화하는 것

좋은 사진 찍는 3가지 방법은 ① 많이 보고
② 많이 생각하고 ③ 많이 촬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다.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 사진인들에게 이우탁저의 '나도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집 또는 사진 전문 서적을 많이 읽고 각종 신문에 게재 되는 사진 자료나 사진신문은 포토뉴스, APC뉴스, 스크랩하고 월간지, 영상·사진예술 등을 정기구독하고, 계간지, 사진비평, 필름회사에서 발행하는 코닥소식, 후지파노라마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사진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여 유명작가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감상, 촬영장소, 기타정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기자재 및 사진전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진전문 갤러리나 전시장, 후지포토살롱, 코닥포토살롱 등에서 전시하는 작품을 관람하여 사진에 대한 수준을 높여 나가야한다.

이렇게 수련과정을 통해서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되었다고해서 모두 다 사진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진의 기본기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과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사진창작 활동을 하여 개인전, 작품집 발표 등을 통해서 자기만의 사진세계를 창조해 나가면서 후배사진인들을 양성했을 때 비로써 진정한 사진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명예와 자긍심을 얻을 수 있을것이다.

이우탁

속초사진협회 2002년도 공모전수상 현황

황병진: 한일월드컵기념사진공모전(입선)

강원사진대전(입선)

고성관광사진공모전(은상, 입선)

김성호: 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

고성관광사진공모전(입선)

치악전국사진공모전(입선)

광주전국사진공모전(입선)

최홍영: 강원사진대전(입선)

강원관광사진공모전(가작)

이왕선: 고성관광사진공모전(금상)

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

최용철: 춘천사진공모전(입선)

김형관: 강원사진대전(입선 3점)

최낙민: 전국철도사진공모전 (은상)

제5회 전국문화유산사진공모전(가작)

제3회 화재사진공모전(금상, 우수상, 장려상)

한국국제사진공모전(입선)

장공순: 창원전국사진공모전(금상)

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

고성관광사진공모전(입선5점)

동아일보국제사진Salon 입선.

강릉, 안동, 안양, 포항전국사진공모전(입선)

어촌, 어항전국사진공모전(입선)

강원사진대전(입선)

최정수: 고성관광사진공모전(입선)

속초관광사진공모전(가작)

울산전국사진공모전(입선)

천안전국사진공모전(입선)

허인순: 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

최하용: 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2점)

고성관광사진공모전(동상)

황동석: 속초관광사진공모전[입선]

고장윤: 한국관광공사공모전(동상)

동해시관광사진공모전(동상)

코닥칼라전국사진콘테스트(입선 외 다수)

김태정: 춘천(강원영서지구)세미누드촬영대회(가작)

속초관광사진공모전(가작)

박민호: 속초관광사진공모전(가작)

김양환: 고성관광사진공모전(입선)

2002년 예총속초지부 돌아보기

박 종 성 | 속초예총 사무국장

▶ 신년 인사회 참가

신년 인사회가 속초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월 4일 설악한화 크리스탈홀에서 개최되어 장규호 회장 및 협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음악협회 소속 설악엔젤스 합창단이 찬조 출연하였다.

▶ 제12회 학생예술상 시상

지난 1년간 예술문화 활동으로 모교와 지역을 빛낸 학생을 학교별로 1명씩을 선발 학생 예술상을 졸업식에 맞춰 시상하였다. 속초예총 회장상 및 부상이 주어졌다.

- 속초중학교 이상혁 (3학년 3반)
- 설악중학교 김태형 (3학년 3반)
- 속초여자중학교 김희선 (3학년 2반)
- 설악여자중학교 김재희 (3학년 7반)
- 속초고등학교 박창민 (3학년 1반)
- 속초여자고등학교 이슬기 (3학년 3반)
- 속초상업고등학교 이명연 (3학년 6반)
- 양양여자중학교 장혜윤 (3학년 2반)

▶ 2002 - 1차 간사회의

2002년도 1차 간사회의가 1월 18일 오후 6시에 예총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3차 예총 속초지부 정기총회 부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김광수 화백 별세

속초예총 2대회장을 지내신 서양화가 김광수 화백께서 2월 19일 향년 81세로 별세하셨다. 화백은 함남 함흥시 생으로 국립 평양미술대학 회화과 재학중 한국전쟁으로 월남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1981년 속초로 이주 줄곧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1994년 학원연합회 초대 지부장, 1987년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3대 지부장, 1990년 제2대 예총 속초지부 지부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후학을 가르치며 향토미술발전 및 문예발전에 실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 개인 창작활동으로 개인전 7회와 중앙단위 및 각종 미술단체(원우회, 신기회, 함남미술대전, 강원도초대작가, 강원도전, 속초미협전)에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그간 수많은 미술 전람회의 수상실적은 물론 향토 문예 발전의 공로 등으로 1992년 제4회 속초시민 문화상, 2000년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제13차 예총 속초지부 정기총회

예총속초지부 제13차 정기총회가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2월 25일 11시에 개최되었다. 지난해 예산결산 및 올해 예산심의 및 사업계획(안)이 상정되어 결의되었다.

▶ 강원 문예육성기금 심의 참가

2002년도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심의가 춘천시 국악예술회관에서 3월 7일 개최되었다. 정광섭, 임수철, 김인환씨가 속초예총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였다.

▶ 2002 - 2차 간사회의

2002년도 2차 간사회의가 4월 3일 오후 6시에 예총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도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1차심의 결과보고건, 2002년도 경상운영비 계수조정건 등이 토의되었다.

▶ 예술지 편집회의

속초예총 예술지 3호 편집회의가 4월 18일 오후6시에 예총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백종숙 개인전

백종숙 개인전이 4월 24일 - 30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작가 백종숙은 성신여대 동양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나토회, 속초미협 및 속초여성 회관에 출강 중이며 속초 중앙미술 학원을 경영중이다. 94년에 이어 두 번째 개인전이며 총 31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연극지도 교사 회의

제11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개최에 따른 연극지도교사 회의가 4월 27일 오후2시에 예총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청소년 연극제 신청서를 낸 도내 10개 고교 교사들이 참가하여 공연 날짜배정 및 무대 견학 등이 이루어졌다.

▶ 제13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심

연예협회 주관으로 4월 28일 13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선전이 개최되었다. 영북지역 중, 고교생 60여 팀이 대회에 참가, 본선 진출팀 13개팀을 선발하였다.

▶ 이성선 시인 추모 문학제

이성선 시인 추모 문학제가 시인 타계 1주년이 되는 5월 4일 오후7시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추모문학제 위원회(위원장 : 최명길)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향토 문학단체 6개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문학제가 진행되었다. 비디오와 카세트 테입으로 시인 생전의 모습과 육성 등을 통하여 시인의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회는 물론 시인 추모 시 낭송회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1주년에 즈음하여 시인 생가에 중앙 및 향토문학 단체들이 후원하여 추모 시비가 건립되었다.

▶ 제13회 속초종합예술제

제13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예총속초지부(회장: 장규호)가 주최하고 예총 소속 단일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문인협회(지부장: 박화), 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 연극협회(지부장: 박영미), 연예협회(지부장: 김동만), 음악협회(지부장: 김영일) 사진협회(회장: 황병진)등 6개 협회가 캐나다 프리마/뉴스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업인 연극협회 정기공연 사업등 총 18개 단일 사업들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 캐나다 프리마 / 뉴스 합창단 초청공연

캐나다 프리마 / 뉴스 합창단 초청공연이 5월 6일 오후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 행사로 개최되었다. 프리마 청소년 합창단은 1994년 창단하여 캘리포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태리, 독일 등에서 공연한바 있으며, 매년 캐나다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1969년 창단한 빅토리아대 합창단은 빅토리아 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22개국의 공연으로 뜨거운 갈채를 받아온 공연 단체로서 4명의 작곡가를 중심으로 600여곡을 상회하는 모든 시대에 걸친 종교음악, 비종교음악 등 다양한 레파토리의 음악 공연을 해오고 있다. 이날 캐나다 합창단 35명은 세계의 민속음악과 종교음악을 중심으로 공연하였다. 아울러 심연흠 예총부회장이 단장

으로 있는 설악엔젤스 합창단이 찬조 출연을 해서 캐나다 합창단으로부터 의 초청공연 제의와 함께 아낌없는 박수와 격찬을 받았다.

공연 후 장소를 영랑정 garden으로 옮겨 캐나다 합창단과 설악엔젤스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심연흠 단장의 지휘 하에 함께 부른 합창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잊지 못할 추억의 어울림 한마당이 었다.

▶ 제2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5월 11일 오전 10시 속초시 수복탑 광장에서 사진협회 주관으로 제2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 대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사진촬영 대회는 지난해 사업의 성료에 힘입어 사협이 의욕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물론 자연과 환경보호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널리 알려 관광홍보에도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사협 회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의 기초지식에 대한 약식 강의도 가졌었다. 입상작 전시회는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사협 정기회원전과 같이 전시했으며 시상식은 5월 17일 개최되었다.



▶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심

5월 11일 1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심이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피아노 초등, 피아노 중등, 성악, 관현악 부문에 85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제13회 설악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속초종합예술제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청소년 가요제가 5월 12일 1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28일 예심을 거친 13개 팀이 출전,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수

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대상 속여고 김안나(한국연예협회이사장상)

금상 속여고 김다영(속초시장상)

은상 속초상고 김정훈, 김주현, 장천공(속초예총회장상)

동상 속여고 김가영(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장려 속초고 임창현, 고경탁(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인기 속초고 김용수, 오세민(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응원 속초상고 권두성(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 제19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최홍영, 김성호, 김형관, 황동석, 황병진, 최상후, 최희재, 최정수, 장공순, 허인순, 임기혁, 강영진, 김정희, 이왕선, 최이권, 최하용 등 사협회원 16명이 40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였다.

▶ 제3회 중국 훈춘시 국제가요제 예심

5월 15일 중국 훈춘시에서 제3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예심이 훈춘시 영국원에서 개최되어 장규호 속초예총 회장과 김동만 연예협회 지부장이 심사 및 진행 관계로 훈춘시를 다녀왔다. 총 예심 참가자 500여명 중에서 본선 출연자 27명을 선발하였다.

▶ 한·일 친선 예술공연

5월 16일 오후6시 강원예총이 주최하고 속초예총 주관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 기념 돗토리현 예술단 방한 공연 『한·일 친선예술공연』이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일본측에서 준비해 온 프로그램은 돗토리 상상 우산춤, 유카무리유타, 정통 가이가라부시를 공연하였다. 한국측에서



는 장고춤, 영동풍물놀이, 양속희무용단의 살풀이 등을 공연하였다.

▶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시상식 및 입상작 전시회

제2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시상식이 5월 17일 오후3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5월 18일까지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되어 입상된 전작품이 전시되었다.

초등부

금상 조양 6/1 장유정 송어와 아주머니

은상 영랑 6/4 이미지 대화

영랑 6/4 정광민 기다림

동상 교동 3/2 김정연 할머니와 수복탑

교동 6/8 김유주 휴식

조양 6/3 권순재 해녀와 시장 아주머니의 만남

가작 교동 3/7 박란화 미역들의 나들이 외 4인

입선 교동 5/10 김예슬 희망 외 29명

중·고등부

대상 속초상고 김희린 해물을 손질하시는 아주머니

금상 속여중 김예인 미소

은상 김희린(속초상고), 최미미(속여중)

동상 조은경(속초상고), 한슬기(속여중),

임단비(속초상고)

가작 조은경(속초상고) 외 4명

입선 김예인(속여중) 외 29명

지도교사상 설악중 이제정 교사

▶ 제8회 설악 주부 백일장

제8회 설악 주부 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18일 10시에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제는 막대, 장바구니 등이 주어졌고 속초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후원하였으며 지역 주부 100여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부 운문부

장원 황필녀

차상 김정순

차하 황성숙

주부 산문부

장원 한명옥

차상 이해정

차하 최호순

장려 한은숙 이순호

▶ 제13회 설악 학생 백일장

제13회 설악 학생 백일장이 주부 백일장과 같이 5월 18일 엑스포 광장(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백일장으로는 영북 최고의 대회로 자리잡은 본 대회에 지역 청소년 1,500여명이 시 산문 부문에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시제는 내찍, 들꽃, 인터넷, 체육시간 등이 주어졌고 심사는 속초문인협회 회원 10명으로 위원을 구성 속초문화사랑방에서 대회직후 심사가 이뤄졌다. 수상자 157명에게는 상장 및 도서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운문부

장원 한승규(교동초)

차상 김이정(영랑초), 정재훈(조양초)

초등학교 저학년부 산문부

장원 최예원(교동초)

차상 이재필(교동초)

초등학교 고학년 운문부

장원 탁동연(교동초)

차상 최정인(속초초), 이지민(교동초)

초등학교 고학년 산문부

장원 고우리(교동초)

차상 조윤지(속초초), 손가은(교동초)

중학교 운문부

장원 김소연(속여중)

차상 김경미(강현중)

중학교 산문부

장원 진미진(강현중)

차상 김현경(속여중)

고등학교 운문부

장원 송선녀(속여고)

차상 이현석(속초고)

고등학교 산문부

장원 김수미(속여고)

차상 김민지(속여고), 이다혜(속여고)

▶ 제3회 설악 주부미술 한마당

5월 18일(토) 오전10시에 엑스포광장 상징탑 일원에서 제3회 설악주부미술한마당 사업이 미협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향토미술 발전 및 미술현장 학습에 크게 이바지 한데 힘입어 주부 미술인구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개최한 본대회에 수채화, 사군자 부문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최우수 남윤희(속초여성회관)

우 수 오경희(속초여성회관),

배명숙(속초여성회관)

특 선 신순애(양양,) 김대중(속초여성회관),

이선화(조양)

장려 / 입선 : 양현미(속초여성) 외10명

▶ 제13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마음과 순수성을 길러주고, 창의성 계발로 보다 밝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개최한 제13회 설악 학생 미술 실기대회가 5월 18일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유치부, 초등부저, 초등고학년 중 고등부에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분으로 나뉘어 주위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기에 지역 청소년 2,0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었다.

수상자는 상장 및 미술용품이 상품으로 지급되었으며 지도교사상은 표창장과 격려금도 별도 지급되었다. (주) 신한화구에서 시상품의 일부를 협찬하였으며 수상자는 속초예총 인터넷과 학교별로 통지되었다.

유치부

최우수 : 정예린 (꼬마샘터놀이방)

신제문 (양양재능미술)

이은지 (크레파스미술)

김민지 (양양초등유치)

오상현 (21세기미술)

초등 1부 (1~2학년)

최우수 : 김수현 (교동1-1), 이지희 (교동1-3)

김상을 (교동2-8), 김필중 (교동2-9)

어유경 (교동2-1), 방신희 (조양2-4)

김 솔 (영랑2-2), 박창용 (영랑1-1)

최민석 (속초2-4), 박정호 (속초2-1)

초등 2부(3~4학년)

최우수 : 김동규 (교동3-4), 박세민 (교동3-7)

유상지 (교동3-6), 박정민 (교동3-8)

김현주 (교동3-8), 김문주 (교동3-5)

최승원 (교동3-8), 김예진 (교동3-8)

김소현(중앙4-목련), 한지예(청대4-3)

초등 3부 (5~6학년)

최우수 : 구민정 (청대5-3), 조세련 (청대5-3)

반은영 (교동6-8), 조소희 (교동6-1)

최승윤 (속초5-1)

중등부

최우수 : 김다솜 (속여중 1-7), 강다현 (속여고2-7)

박단비 (속여고1-5), 김나연 (속여고1-9)

박혜진(속여고2-4)



▶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5월 18일 오후1시에 문화회관 대 소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영북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피아노, 관현악, 성악 부문에 예선을 거친 진출자들이 경연을 벌인 결과 아래와 같이 부문별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피아노 초등 1. 2 학년부

금상 - 박수경 (교동초등 2학년)

은상 - 이승욱 (청대초등 2학년)

조진영 (속초초등 2학년)

동상 / 장려 - 황유진 (교동초등 1학년) 외 3명

피아노 초등 3. 4 학년부

금상 - 최민지 (교동초등 4학년)
 은상 - 김수정 (교동 4학년), 이은정 (교동4학년)
 김로운 (교동4학년)

동상 / 장려 김계선 (속초초등 4학년) 외3명

피아노 초등 5. 6 학년부

대상 - 이아름 (속초 6학년) 한국음악협회이사장상

은상 - 이예지 (교동 6학년)

동상 - 안우현 (교동 5학년) 외2명

피아노 중등부

금상 - 박운정 (속초여중 2학년) 속초예총회장상

은상 - 이대우 (설악중 2학년)

박서영 (설악여중 3학년)

장려 - 탁혜린 (설악여중 2학년) 외1명

성악 초등 1-3학년

동상 - 최승윤 (강릉포남초등 1학년)

성악 초등 4-6학년

금상 - 고아라 (청대초등 5학년)

은상 - 방승하 (중앙초등 4학년)

동상 장려 - 서정길 (교동초등 4학년) 외1명

성악 중등

동상 - 김경미 (동해북호여중 3학년)

성악 고등

금상 - 박혜인 (강릉경포고 3학년)

동상 - 최아람 (속초여고 3학년)

관현악 초등 1-3학년

은상 - 이신성 (교동초등 2학년)

은상 - 이수진 (청대초등 3학년)

동상 - 김은송 (설악초등 2학년)

관현악 초등 4-6학년

금상 - 오주연 (서울연주초등 6학년)

관현악 중등

금상 - 권예나 (속초여중 1) - 속초시장상

은상 - 강선혜 (설악여중 3학년)

관현악 고등

동상 - 김은영 (속초여고 3학년)

▶ 제6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6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5월 24일 오후7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5월 11일 및 18일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 본심을 거친 금상 이상 수상 학생들로 출연자가 구성된 연주회로서 지정곡 없이 평소 연마한 음악 실력을 발표회 형식의 공연이었다. 무대에서의 실경험을 익힘



과 동시에 향토 청소년 음악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피아노 초등 5, 6 학년부에 출연하여 전체 대상을 차지한 속초초등 6학년 이아름 등 8명이 수상하였다.

▶ 제27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제27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31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점을 출품하였다. 출품자는 아래와 같다.

한국화 - 김길자, 김명분, 백종숙, 옥명준, 이혜경,
 서양화 - 공재숙, 김종학, 박동국, 박흥기, 서문일
 초, 안치홍, 이동수, 이선미, 정광섭, 최
 낙민, 허인순

조 소 - 강익희, 박영근, 정봉재, 신동진, 장국보,
 장승복

공 예 - 고주리

서 예 - 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박종철, 이행섭,
 최홍영, 함연호



▶ 제11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 11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내 10개 고교가 참가한 금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교는 11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출전권 및 한국연극협회에서 지원하는 대회 참가비 함께 주어진다.

최우수상 동해광희고등학교

지도교사상 전성호(동해광희고등학교)

우수상 속초여자고등학교

장려상 강일여자고등학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최우수연기상 조강현(동해광희고), 서승희(강일여고)

우수연기상 윤은남(북평여고), 박문수(속초고), 이미래(삼척삼일고), 황은영(속여고), 남호섭(속초상고), 이명길(춘천기계공고)

연기상 유은혜(홍천여고), 홍나래(유봉여고)

▶ 제7회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

제7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 3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다. 6월 3일 오후2시 제13회 설악학생미술 실기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바로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금번 전시회에는 제13회 설악 학생 미술실기대회 우수작 102점, 일본 요나고시 10점, 일본 사카이미나도시 29점, 중국 훈춘시 38점 등 총 179점이 전시되었다.

외국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지역 아동 미술활성화의 계기로 매년 추진되어온 미협계의 중점 국제사업 중 하나이다. 전시회를 마치고 제13회 설악 학생 미술실기대회 수상작들을 당 국제교류에 참가한 市에 각 100점씩을 송부하여 외국에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토록 하였다. 특히 (주) 신한화구의 협찬을 받아서 제3회 훈춘시 국제가요제에 본 전시회에 작품을 보내준 훈춘시 학생들에게 감사의표시로 학용품을 전달하였음은 물론 우수 출품작을 선별하여 속초예총회장상 및 미협지부장상을 수여하였다.

▶ 제3회 훈춘시 가요제

제3회 훈춘시 가요제가 6월 26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극원에서 예총(회장: 장규호)이 주최하고 연

예협회(김동만 지부장)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5월 15일 예심을 통과한 27명의 출연자가 노래 솜씨를 겨뤘다. 출연자 및 1,300여명의 입장객 전원에게 기념품(타월, 티셔츠)을 협찬 받아 지급하였다. 강원도 속초시 그리고 많은 지역단체의 후원으로 대형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DVD, 고급 손목시계 등 푸짐한 경품도 지급하였다. 장규호 예총회장, 한기학 김동만 연예협회 전 현직 지부장, 그리고 속초연예협회 악단원과 방송국직원 진행요원등 20여명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속초방송국은 본 대회를 현지에서 녹화하여 라디오로 방송하였다.

대 상 류금숙 (강원도지사상, TV29인치 평면)

금 상 김순선 (TV29인치)

은 상 장진용 (냉장고)

동 상 김광남 (세탁기)

장려상 최 화, 조 옥 (DVD 플레이어)

인기상 강금복, 김순옥, 리해연, 안광용, 김성옥

우정상 문해옥, 허현숙, 심명국, 한 연, 주금선

특별상 리옥화, 김춘란



▶ 제3회 강원사진인 워크샵 및 사진강좌

제3회 강원사진인 워크샵 및 사진강좌가 6월 29~30일까지 전국의 사진예술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사협과 속초사협 주관으로 설악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29일 사진세미나인 제1강의에서는 강원관광 사진활성화 방안과 한국사협에서 개최하는 사진강좌인 제2강 다항 - 사협 입회점수 인정에 대한강의가 개최되었다.

30일에는 장소를 학사평 저수지로 이동 야외 누

드촬영을 실시하였다.

▶ 2002 - 3차 간사회의

2002년도 3차 간사회의가 7월 25일 오전 11시에 예충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제14회 속초문화상 추천건 등을 확정지었다.

▶ 연극협회 (극단 굴렁쇠) 정기공연

7월 30일 오후 7시30분에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근삼작 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공연하였다. 장규호 연출로 김귀선, 박영미, 김태영, 정경숙, 김영식, 윤영은, 김영주, 남호섭 등이 출연하였으며 어느 노배우의 쓸쓸한 노년을 다룬 작품이다. 강원연극제 최종 리허설을 겸한 공연이었으며 관객은 100여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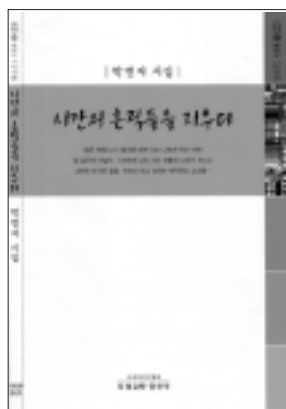
▶ 제19회 강원연극제 참가

제19회 강원연극제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창군 문예회관에서 도내 4개 극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속초에서는 극단 굴렁쇠가 본 대회에 참가 이근삼 작, 장규호 연출의, 작품명 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 로 8월 5일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금번 대회에서 극단 굴렁쇠는 강원도지사상인 대상을 수상 상금200만원과 함께 제20회 전국연극제 출전권과 개인상으로 무대미술상을 김인환씨가 받아 도연극협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속초문인협회 시인 김경자 「문학세계」로 등단

지난 8월 속초문인협회 소속 시인 김경자 회원이 「장독대의 봄 풍경», 「빗장 풀기», 「밤비처럼», 「거듭나기», 「안개」 등으로 문학세계에 등단하였다.



▶ 속초문인협회 시인 박명자 제9시집

「시간의 흔적들을 지우다」 출간

속초문인협회 시인 박명자 회원이 제9시집 「시간의 흔적들을 지우다」를 월간문학에서 출간하였다.

시평은 윤재근 (문학평론가, 한양대 교수)가 하였다.

▶ 제20회 전국연극제 대표자 대회 참가

장규호 예충 회장은 속초연극협회 임원들과 같이 10월 27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연극제 개최에 따른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 강원 예술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

배동욱 강원도 예충회장 및 강원예술인들이 태풍 『루사』의 피해 지역인 속초를 찾아 복구 지원을 하였다. 강원예충 예술인 100여명은 이날 속초시 상도문동의 박충일씨와 이웃한 논에 대한 벼 세우기를 하며 하루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태풍 피해로 망연자실하여 실의와 절망에 빠진 농가에 커다란 희망을 전달한 사업으로 국가적 천재지변을 당한 속초로선 강원예충 소속의 예술인들의 이같은 선행사업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린다.

▶ 제20회 전국연극제 참가

극단 굴렁쇠는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였다. 전국에서 15개 극단이 각자 도 및 광역시 대표로 자기고장의 명예를 걸고 혼신의 힘을 겨루었다. 극단 굴렁쇠는 13번째로 10월 9일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을 하였다. 이근삼작, 장규호 연출의 「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무대에 올렸다. 지난해부터 면밀한 극 분석과 치밀한 구성을 위해 많은 공을 드렸기에 좋은 반응으로 공연을 마쳤다. 연지홀을 만실로 매운 관객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으며 음악 설정 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 금번 대회에서 극단 굴렁쇠는 타도에 비해서 열악한 재



정 지원과 극중 등장 인물과 스케일의 협소함, 태풍으로 인한 무대셋트 유실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단체상은 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상실적을 거두었다. 아울러 김귀선씨가 개인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단체상 은상에게는 부상 500

만원, 연기상에게는 200만원의 부상과 함께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상장이 주어졌다.

▶ 속초문인협회 권정남 회원의 시 '목우재 벚꽃' 등 네 편이 가곡으로 불려지다

지난 10월 16일 한국작곡가 협회 주관,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시문학회 후원으로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얼굴'의 작곡가 신귀복의 신작 가곡 '6인의 명사와 한국 서정가곡' 발표회가 있었다.

이 날 속초문인협회 소속의 권정남의 시 '목우재 벚꽃', '바람부는 날', '겨울 비선대', '어느 시인의 고백' 등 네 편이 가곡으로 불려져 가을밤의 정취를 돋구어 주었다.

▶ 속초연예협회 한경심 회원 "노래의 여왕상" 수상

제10회 강원도 주부가요제가 지난 10월 26일 춘천시 평생교육정보관 공연장에서 강원예총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연예협회 속초지부의 한경심 회원이 참가하여 대회 최우수상인 "노래의 여왕상"을 수상하여 강원도지사상 및 부상으로 7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 제40회 강원종합예술제 연극초청 공연

연극협회는 강원 예총이 주최하는 제40회 강원종합예술제의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2002 강원연극 축전」에 초대되어 제20회 전국연극제 단체상 은상 수상작인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10월 21일 오후 7시 춘천시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공연하였다

▶ 바리톤 민중홍 독창회

바리톤 민중홍 독창회가 10월 28일 오후 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예총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관동대 출강, 강원성악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깊은강' (흑인영가), '청산에 살리라' (김연준) 등의 곡을 연주하였다.

▶ (사)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창립총회

(사)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창립총회가 10월 30일 오후 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협이 중앙 인준을 받으면 속초예총은 7개 단체가 되는 듯 깊은 날이었으며 참관인으로는 이인근 국악협회 강원지회장 및 부지회장이 참가하였고 향토국악인 관계자 등 다수가 참가하였다. 이날 임원으로 권종식씨가 초대 지부장으로 선임되었고 부지부장으로는 정연석씨, 사무국장으로는 김동연, 이사로는 양숙희, 주동진, 고광민 감사는 한정규, 최종현 씨 등이 선임되었다.

▶ 제6회 설악서예 백일장

제6회 설악서예백일장이 11월 2일 오후 2시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속초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학생부참가자 80여명이 한문, 한글, 부분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서재로는 초등 한문부 "二人同心 其利斷金" 중고등 한글부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안에도 푸른 하늘이 있다" 등이 주어졌다. 시상은 대회 직후에 실기현장에서 거행되었다.

▶ 제14회 속초시민 문화상 수상 ... 심연흠

11월 2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속초예총 부회장이인 심연흠 전 음악협회 속초지부장이 제14회 속초시 문화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하였다. 심연흠 수상자는 음악협회 속초지부 인준에 많은 기여와 지난 10여년간 음협지부장 재직 시 수많은 클래식 음악공연 사업 및 청소년 사업을 활발히 펼쳐 향토 음악발전에 이바지한바 공적을 인정받아 시민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예총 예술지 제3호 편집회의

예총 예술지 제3호 편집회의를 11월 15일 오후 6시에 예총 사무실에서 개최하여 편집 방향과 표지화 등이 논의되었다.

▶ 제7회 속초서우회원전

11월 16일~17일 양일간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7회 속초서우회원전이 속초예총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현 서우회 회장은 湖停 박학성씨가 맡고 있으며 30명 회원작품 및 초대·찬조 작품작 50여점이 전시되었다.

▶ 독자와 함께하는 문학의 밤

11월 28일 18시에 카페 아리랑에서는 한국소설가협회와 설악문우회(회장: 강호삼)가 공동으로 독자와 함께 하는 문학의 밤을 개최하였다. 한국문예진흥원에서 후원하는 2002 중소도시 순회 문학강연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사업에 지역문학인 및 독자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김종현씨의 사회로 이기운(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 김석록(소설가)의 문학 강연에 이어 독자마당 시낭송회와 지역 문인들의 시낭송회 및 노래마당(출연: 이동탁) 등의 프로그램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 제5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공연

11월 29일 19시에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5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정기공연이 개최되었다. 최종길(회장: 한남초등학교) 외 11명, 어린이 합주(신명선 34명)등이 출연하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Bransle de chevaux(르네상스 곡: 16세기), greensleeves to a Ground(영국민요 사계 중 겨울 2악장), 에레스 뚜(스페인 민요) 등을 연주하여 500여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었다. 이틀전 양양 지역민을 위해 양양문화관에서 1차로 공연한바 있으며 원승식(중앙초), 이현준(교동초)이 출연하는 기타연주회가 찬조 출연 하였다.

▶ 2002 무대지원사업 및 송년연극 정기공연

연극협회 극단 굴렁쇠에서는 12월 14일~15일 오후 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다리오포 작 김귀선 연출의 “돈내지 맙시다”를 무대에 올렸다.

이탈리아 경제공황 때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다리오 포의 대표적인 사회 풍자극으로 인간으로 태어나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수작으로 평가되어지는 작품이다.

김귀선, 윤영은, 김태영, 남호섭, 김영식, 김영주, 김진우 등이 배우로 출연하였다

▶ 강원도예총 제41차 정기총회 참가

제41차 강원도예총 정기총회가 12월 14일 오후 3시 동해 망상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어 속초예총에서는 장규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정총에서는 배동욱 회장이 6선으로 예총회장직에 피선되었으며정규호 속초회장이 강원예총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002 강원예술인 평가대회를 겸한 본 행사에서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속초자동차 김광수 원장이 배동욱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아울러 속초사협 고문인 최익권씨가 공로패를 받았다.

▶ 제1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개최

제1회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가 12월 20일 오후 1시부터 속초시 노학동에 소재한 자활센터에서 연예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연말 소외되고 외로운 지체장애인들에게 함께 어울린 한마당과 노래로 희망을 주고자 개최하여 협회에서 밴드와 시상경품 다과 등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기증하였다. 속초사진협회에서도 본 해아에 동참, 사진 3점을 기증하였으며 사회는 연극인 김귀선씨가 진행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제12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제1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20일 오후 7시에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정기연주회는 음협의 연중 가장 비중 있는 사업

중 하나로서 매년 송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어 왔다.

이날 연주 프로그램으로는 플룻 독주의 이은희, 바리톤 독창 민종홍, 첼로 독주의 김지영, 바이올린 2중주 권은희 심영내, 피아노 독주의 백윤미, 설악 엔젤스합창단 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선 보였다.

▶ 2002 송년미술제

태풍 「루사」 수해민 돕기 2002 송년자선 미술제가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서예 등 5개 장르에 미협 회원 작품 53점이 전시되었다. 판매된 작품액 일부는 태풍 「루사」 수해민 돕기 자선금으로 기부하였다.

▶ 극단 굴렁쇠 제5차 워크샵

12월 22일 오후 1시에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5차 극단 굴렁쇠 워크샵이 「연극, 제대로알기」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연극의 이론과 실기의 접목, 학술적인 접근을 통한 연극 예술의 이해도 도모 및 효과적인 이론의 응용방법 등을 꾀하고자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초청강사 양정웅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여 스페인, 일본, 인도에서 활동하였으며 극단 여행자 대표 및 상임연출가로 활동중이다. 강연주제는 「연극과 즉흥」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으며 지역연극인, 연극부학생, 청소년, 시민 등 다수가 본 워크샵에 참가하였다.

▶ 갈피 32집 발간 및 문학축제

강원 최고의 연륜을 자랑하는 순수 문학지 갈피 32집 발간을 기념한 문학축제가 12월 21일 오후 6시 동진오피스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갈피지에는 시에 박명자, 김춘만, 이충희, 이구재, 이화국, 장승진, 채재순, 지영희, 권정남, 김종현, 최월순, 박웅남, 김향숙, 김경자, 최숙자, 조인화 등 회원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소설에는 윤호렬, 강호삼, 수필 이은자, 희곡 최재도, 콩트 김석록, 동화 이희갑, 장선옥의 작품으로 총 321쪽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축제에서는 설악문우회 회원, 향토문학인, 독자 등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회장(강호삼) 인사말과 장선옥씨의 사회로 회원 시낭송회, 중견문학인 문학강연 등 1부와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 및 회원동정(시집발간, 등단) 독자 시낭송

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 설악신문과 간담회

12월 23일 오후 6시 30분에 속초예총 임원과 설악신문사 직원들과 2002 송년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 협회가 인준된 국악협회 임원들과의 상견례도 겸했다.

▶ 속초예술지 3호발간

속초예술 제3호가 12월 31일 발간되었다. 전문예술지를 지향하며 6개 협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글을 최대한 소개코자 하였다. 또한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시화, 원로예술인 소개 및 한 해 동안 예총 사업 실적 등 다양한 원고를 수록하였다.

배부처는 전국예총 및 향토예술인,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표지화는 사진협회 최구현씨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2002년 한 해도 예총에서는 많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제37회 설악문화제가 개최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에는 국악협회가 합류하여 예총 식구가 7개 협회로 대식구가 됩니다.

새해에는 설악문화제도 멋지게 치르고 협회가 서로의 장점을 심분발휘하여 질적 완성도 높은 다양한 사업 등이 왕성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속초예총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부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 : 박 화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 : 김광희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장 : 심연흠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 : 박영미

한국연예협회 속초지부장 : 김동만

속 초 사 진 협 회 장 : 황병진

속초예술 제3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길목 카페

대표 신 오 일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 내 ☎ (033) 637-5123



왜 풍경에는 물고기가 달려있을까?

자나 깨나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 죽어서 까지도 눈을 감지 않는 것이 물고기이기에 수행자들은 이 깨어있는 것의 정신을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 산사의 풍경 끝에 물고기를 매달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 깨어있고자 하는 자세를 수협도 본받기 위해 다각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낡은 관행을 깨는 노력, 그리고 고객사랑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수협, 깨어있는 수협을 만나보십시오.

 633-1271~5



바다사랑 고객사랑 —————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